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ELIZABETH-THE GOLDEN AGE”의 영화의상 연구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安 美 花

2011年 2月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ELIZABETH-THE GOLDEN AGE”의 영화 의상 연구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를 중심으로-

指導敎授 張 愛 蘭

安 美 花

이 論文을 衣類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 年 12月

安美花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 年 12月

dCollection @ jeju

목 차

국문 초록

표 목차

그림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Ⅱ. 이론적 배경 ····· 6

1. 영화 의상 및 시대의상의 개념 ····· 6

1-1 영화의상 ····· 6

1-2 시대의상 ····· 8

2. 역사적 인물 고찰 ····· 10

2-1. 명성황후 ····· 10

2-1-1. 조선 후기의 역사적 배경 ····· 10

2-1-2. 명성황후 인물사 ····· 12

2-1-3. 명성황후 시대의 복식 ····· 14

2-2. 엘리자베스여왕 1세 ····· 20

2-2-1.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시대적 배경 ····· 20

2-2-2.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인물사 ····· 22

2-2-3.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시대의 복식 ····· 24

dCollection @ jeju

Ⅲ. 영화 내용 및 여 주인공의 의상 분석 ····· 29
1. 명성황후 ····· 29
1-1 '불꽃처럼 나비처럼' 영화 줄거리 ····· 29
1-2 영화 속 명성황후 민자영 인물 분석 ····· 30
1-3 의상 분석 ····· 32

2. 엘리자베스 여왕 1세 ····· 49
2-1 '엘리자베스- 골든 에이지' 영화 줄거리 ····· 49
2-2 영화 속 엘리자베스 인물 분석 ····· 50
2-3 의상 분석 ····· 51

Ⅳ. 두 여 주인공의 의상 비교 분석 ····· 68

Ⅴ. 결론 및 제언 ····· 76
1. 결론 ····· 76
2. 제한점 및 제언 ····· 78

참고문헌 ····· 80
ABSTRACT ····· 83

dCollection @ jeju

국문 초록

영화 의상은 예술적, 상징적인 의상으로 영화의 주제, 배우의 캐릭터, 극적인 상황의 이미지 등이 의상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극적인 전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러 장르의 문화 예술 공연 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화 의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기획된 시대극 의상은 영화의 주제, 배우의 캐릭터, 극적인 상황의 이미지 등의 정보를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더불어 복식사적 고찰을 통한 재현 및 재해석된 영화의상은 더욱더 관객들에게 효율적인 이미지 전달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영화의상이 상황에 따른 극적인 이미지 표출을 위해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시켜 표현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배경으로 기획된 시대극인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엘리자베스-골든 에이지'를 비교 · 분석 · 해석하였다. 즉, 영화'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의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골든에이지'에서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화의상을 비교 · 분석하기 위해 극의 스토리 전개 상 두 주인공의 공통적인 캐릭터가 표출된 장면들에서 유추된 다섯가지 이미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둘째,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셋째,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 넷째,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등이다. 이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두 주인공의 성격과 상황적 스토리에 의해 표출된 의상들을 선별하여 비교 ·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함축된 상징적 의미를 유추 ·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표출시킨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주인공이 왕비와 여왕이라는 지위 차이는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 주인공의 의상에는 정치에 필요한 카리스마가 함축되었다.

dCollection @ jeju

둘째,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인으로의 삶과 왕비 또는 여왕으로서의 운명적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의 상태가 함축되어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이중적 내면의 갈등이 함축되었다.

셋째,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주인공의 의상 표현기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슬픔을 함축시킨 부분은 유사하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슬픔이 함축되었다.

넷째,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주인공은 상황적 차이가 있지만, 두 주인공의 의상에는 적에 대응하기 위한 강인함이 공통점으로 도출되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강인함이 함축되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해와 암살이라는 상황에서 두 주인공의 운명적 지위인 조선의 국모와 영국의 국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즉, 두 주인공의 의상에는 당당함이 함축되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이란 지리적 차이, 시대의 차이 및 지위의 차이가 있는 영화라 하더라도 유사한 극적인 상황에 따라 표출된 영화의상의 상징적 의미가 유사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화의상의 디자인에는 영화의 극적인 분위기의 표현은 물론 이에 따른 상징적 의미도 함축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의상 디자인 시도에 다양한 표현기법을 제공해줌으로써 영화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려되며, 더 나아가서는 영화의상을 예술의 한 장르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다.

Key Words : 영화의상, 명성왕후, 엘리자베스 여왕, 카리스마, 이중적 내면의 갈등, 슬픔, 강인함, 당당함

dCollection @ jeju

표 목 차

<표 1> 연구 모형 ····· 5
<표 2>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명성황후) ····· 35
<표 3>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명성황후) ····· 39
<표 4>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의 이미지 (명성황후) ····· 42
<표 5>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의 이미지 (명성황후) ····· 45
<표 6>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의 이미지 (명성황후) ····· 48
<표 7>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 54
<표 8>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 58
(엘리자베스 여왕 1세)
<표 9>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의 이미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 61
<표10>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의 이미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 64
<표11>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의 이미지 ····· 67
(엘리자베스 여왕 1세)
<표12> 카리스마 이미지의 비교분석 ····· 70
<표13> 이중적 내면의 이미지 비교분석 ····· 71
<표14> 슬픔의 이미지 비교분석 ····· 72
<표15> 강인함의 이미지 비교분석 ····· 73
<표16> 당당함의 이미지 비교분석 ····· 74

dCollection @ jeju

그림 목차

<그림 1> 녹당의와 보라색 대란치마 ····· 32
<그림 2> 분홍 저고리와 보라색치마 ····· 32
<그림1-1> 덕혜 옹주 당의 ····· 35
<그림2-1> 개항기 여인 ····· 35
<그림 3> 청색 장포와 보라색 대란치마 ····· 36
<그림 4> 보라색 당의와 남색 대란치마 ····· 36
<그림3-1> 두루마기 ····· 39
<그림3-2> 윤 황후 원삼 ····· 39
<그림4-1> 덕혜 옹주 당의 ····· 39
<그림 5> 꽃수 장식의 저고리 ····· 40
<그림 6> 연보라색 저고리와 보라색 대란치마 ····· 40
<그림5-1> 개항기 여인 ····· 42
<그림 7> 흰원삼과 홍색치마 ····· 43
<그림 8> 화려한 금사 장식 ····· 43
<그림7-1> 윤 황후 원삼 ····· 45
<그림 9> 흰원삼과 황색치마 ····· 46
<그림 10> 금사 장식 ····· 46
<그림9-1> 윤 황후 원삼 ····· 48
<그림 11> 붉은색 로브 ····· 51
<그림 12> 금색 로브 ····· 51
<그림11-1> Elizabeth Ⅰ: The Peace Portrait, 1580-5
http://www.marileecody.com/gloriana/elizabethpeace.jpg ····· 54
<그림12-1> Elizabeth Ⅰ: The Hardwick Portrait, 1599
http://www.marileecody.com/gloriana/elizabethhardwick.jpg ····· 54
<그림 13> 푸른색 볼레로 ····· 55
<그림 14> 은회색 로브 ····· 55

dCollection @ jeju

<그림13-1> Elizabeth Ⅰ: The rainbow Portrait, 1600
http://www.englishhistory.net/tudor/monarchs/eliz1.html ····· 58
<그림14-1> Elizabeth Ⅰ: The Hardwick Portrait, 1599
http://www.marileecody.com/gloriana/elizabethhardwick.jpg ····· 58
<그림 15> 배제된 장식 ····· 59
<그림 16> 보라색 로브 ····· 59
<그림15-1> Elizabeth Ⅰ: The Emine Portrait, 1585
http://www.marileecody.com/gloriana/elizabethermine.jpg ····· 61
<그림 17> 보라색 로브 ····· 62
<그림 18> 메탈 장식 로브 ····· 62
<그림17-1> Elizabeth Ⅰ: The Phoenix Portrait, 1575
http://www.marileecody.com/gloriana/elizabethphoenix .jpg ····· 64
<그림18-1> Elizabeth Ⅰ: The Darnley Portrait, 1575
http://www.marileecody.com/gloriana/elizabethdarnley .jpg ····· 64
<그림 19> 흰색 로브 ····· 65
<그림 20> 흰색 베일 ····· 65
<그림19-1> Elizabeth Ⅰ: The Ditchley Portrait, 1592
http://www.marileecody.com/gloriana/elizabethditchley.jpg ····· 67

dCollection @ jeju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적 여유와 여가 시간의 증가는 현대인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 대중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예술매체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드라마와 같은 공연문화가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많은 활력소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직접 체험한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무대의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공연문화 중에서도 영화가 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예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함께 발전하면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라는 점이 오늘날의 새로운 문화적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영화는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문화 산업이자 대중예술의 한 장르[1]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무대의상이란 극적인 분위기와 요구에 적합하면서 시각적으로도 흥미를 줄 수 있는 예술적, 상징적인 의상으로 무대 위에서 신체에 걸치는 모든 것, 즉 의상을 비롯한 장신구·가면·가발 등의 소품과 신체의 분장 등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대의상에 대한 연출가와 디자이너의 역할은 극에 대한 정보와 주제·분위기·인물의 성격 등을 배우가 입을 의상에 표현함으로써 극적인 전달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단,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주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무대의상을 표현할 수 있다.[2] 특히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기획 된 무대의상은 시대적 상황과 내용, 그리고 배우의 성격 등의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특정 시대가 반영된 시대극의 무대의상은 복식사적 고찰을 통한 재현 및 재해석으로 관객들에게 효율적인 이미지 전달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무대의상은 스토리 전개에 따라 배우들의 감정과 분위기 표출을 의상

1) 김순영 (2005). *영화로 보는 복식사*. 서울: 경춘사, p.1.
2) 최은임 (2007). 오페라 <투란도트>의 舞臺衣裳(무대의상) 硏究(연구) - 女主人公(여주인공) 투란도트의 衣裳(의상)을 中心(중심)으로- . *패션 비즈니스 학회지*,11(2), pp.42~57.

dCollection @ jeju

의 구성선과 색상·재질 등으로 표현된 것이라서 관객들은 자신의 시각에 따라 변화될 의복 움직임의 표현효과를 기대하게 된다.[3)]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영화 속의 의상을 분석해봄으로써 영화 관람자에게 영화의 스토리는 물론 극적인 분위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영화의상의 제작자에게도 영화의상에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 중에서도 시대적 배경으로 기획된 시대극인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엘리자베스-골든 에이지'를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영화 '엘리자베스-골든에이지'에서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명성황후 영화의상을 선택하여 비교 · 분석하려고 한 이유는 비록 두 작품의 주인공이 시대적 상황과 동 · 서양의 지역 차이와 통치자였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왕비로 정치에 참여한 명성황후라는 입장 차이도 있긴 하지만, 두 여주인공의 인물 캐릭터 상의 공통점을 발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통점은 두 여주인공이 한 시대의 정치를 통치하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 시대적 상황에 따른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했다는 것,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으로써의 아름다움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카리스마와 반대 세력에 맞서는 강인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등 두 주인공의 성격과 스토리를 개별성 있게 표출시킨 의상들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주인공인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영화에서 표현된 의상들 중에서 스토리 전개상 극적인 상황에 따라 착용된 의상들을 선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서 영화의상에 표현된 상징적 의미 도출은 물론, 극적인 다양한 표현 효과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적인 시대 배경으로 기획된 영화의상은 정확한 고증 및 재현, 그리고

3) 조윤영, 양숙희 (2003). 영화의상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로브의 표현효과 . *복식* 53(3). pp.89~106.

dCollection @ jeju

다양한 극적 상황에서의 의상재해석을 통해 극적인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동·서양이라는 지역적 차이·왕비와 여왕이라는 신분차이· 실존했던 시대차는 있지만, 스토리 상의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인물 성향의 유사점으로 인해 두 주인공의 영화의상을 비교 · 분석 · 해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셋째,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하여 상황별로 나타나는 극 중 의상의 표현 효과를 제시해줌으로써 앞으로의 다양한 무대의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론적 연구로는 영화의상 및 시대의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시대적 배경및 인물사, 그리고 복식을 고찰한 결과를 실증적 연구의 근거로 사용한다.
첫째, 영화 의상의 개념 및 시대의상의 개념을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사, 복식 등을 고찰한다.

실증적 연구로는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명성황후에 관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관한 영화 '엘리자베스-골든에이지'를 스토리 전개상 극중 주인공의 극적인 상황에 표현된 의상들을 선별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 해석하도록 한다.

dCollection @ jeju

첫째,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주인공 명성황후의 의상 총 17벌 중 스토리 전개의 상황에 따라 7벌을 선별하여 분석 · 해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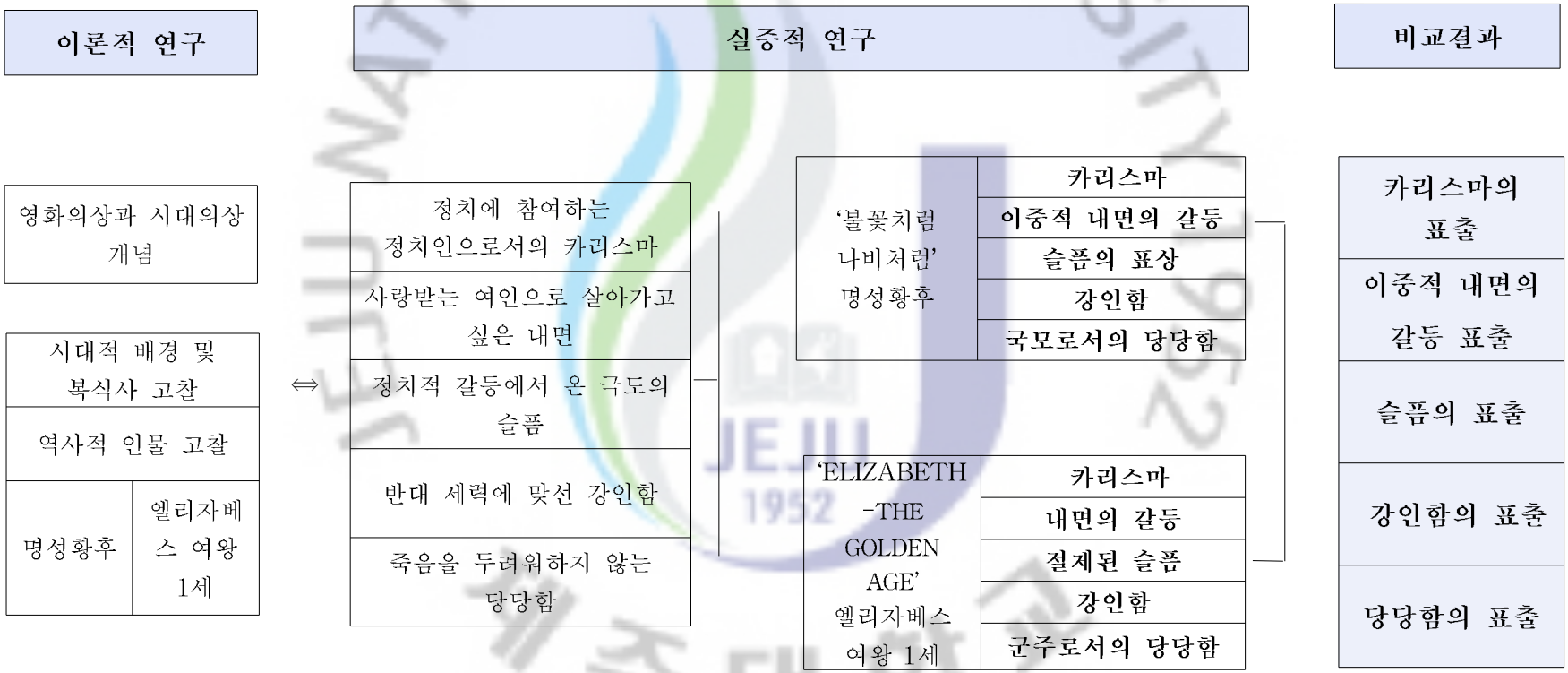
둘째, 영화 '엘리자베스-골든에이지'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의상 총 24벌 중 스토리 전개의 상황에 따라 8벌을 선별하여 분석 · 해석하도록 한다.

셋째, 위 두 영화의 주인공 의상을 비교 · 분석 ·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극적인 상황에 따라 영화의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의상의 표현 효과를 도출한다.

두 주인공은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며 동 · 서양이란 지역적인 차이와 왕비와 국왕이라는 신분차이 등의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역사적 고찰을 통해 규명된 실존인물의 성향을 전제로 두 영화의 여주인공의 극 중 캐릭터의 유사함을 발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극적인 상황의 이미지를 다섯 가지로 유추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양이란 시대적, 지역적,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극적인 상황의 이미지 표출을 위한 의상의 표현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재조명한 것이며, 앞으로의 영화의상디자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려된다.

dCollection @ jeju

<표 1> 연구 모형



dCollection @ jeju

Ⅱ. 이론적 배경

1. 영화 의상과 시대의상의 개념

1-1 영화의상

영화란 대중문화의 한 장르이고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문화 산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한편의 영화가 시나리오, 감독의 연출, 배우의 연기를 비롯하여 촬영· 음향· 미술· 의상· 음악·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예술적 재능이 총집적되어 스크린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며[4] 또한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영화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한다고 상상되어지는 일정한 사물로서의 대상을 그것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동, 즉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재현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영화는 무엇보다도 영화는 시각에 호소하는 매체[5]라 할 수 있다.

시각적인 매체인 영화란 3차원의 공간 속에서의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영화의 의상은 인체와 옷의 상호 관계는 물론 의상과 공간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까지도 고찰대상이 되므로, 의상이 입혀지는 인체와의 관계 및 움직임, 그리고 움직이는 공간, 외적요인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6]

여기에서 영화의상이란 영화의 극적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의상을 의미하며, 배우의 캐릭터를 표현함은 물론, 배우의 동작과 그 심리적인 내면의 연기까지 모두 함축되어 표현되어야 한다. 대부분 영화 속에서 표현된 의상은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며, 전개될 스토리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영화에서 의상은 단순히 배우의 몸을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아닌 영화 언어

4) 김순영. *앞의 책*, p.1.
5) 한양대 연극영화과 편. (2000). *영화예술의 이해*. 서울 한양대 출판부, p.14.
6) 윤지영 (2009) 'Wolfflin과 Delong 이론을 통해 고찰한 영화의상의 형태적 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 33(7), pp.1140~1141.

dCollection @ jeju

의 여러 형태 중의 한 요소로서, 외부적으로 시대적인 배경, 자연현상, 계절감, 지방색 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각기 배우의 극중 인물로서 성격, 개성, 용모, 기호, 기질, 의도까지도 해석해 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적인 의미가 함축된 시각적 언어이다.[7] 그러므로 표현 효과를 중요시한 영화에서 의상이란 미술, 음향 등의 전달 매체와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표현 매체로서,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전달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각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 의상은 영화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과 극의 전개를 원활하게 하여 극적 효과의 상승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화 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인물 파악을 위해 그 인물의 말, 행동, 생각과 감정 등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8] 즉, 관객들이 영화의상의 형태, 소재, 장식의 유무, 문양, 색상, 트렌드 등을 통해 영화주제를 파악하였다는 것은 바로 관객의 시각에 호소되었음은 물론 주제가 전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의상은 배우라는 극중 인물이 제 2의 인물로 변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므로, 배우가 극중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극중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9] 이는 극중 인물의 내면, 상황설정, 캐릭터 이미지 등이 표현된 의상을 통해 극적 반전은 물론 확연히 다른 이미지 연출도 가능한 시각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의상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하고 그 의상을 입는 인물을 묘사하여 심리 표현, 상징적 암시로서 극의 전개를 돕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배우의 극중 역할에 부합되고,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편승할 수 있는 의상이어야 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극중 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10]

---

7) 김성곤 (1997). *영화예술의 미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2.
8)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p. 31.
9) 김미영 (1999).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복식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6.
10) 김혜진 (2001). *영화의상이 패션에 끼친 영향 -1920년대~1960년대 헐리우드 영화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8~9.

dCollection @ jeju

결론적으로 영화의상은 대중들이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분위기, 인물의 성격 등 영화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 시대의상

시대극 영화는 대개 장엄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로, 화려한 스펙터클로 구성되어 일반적으로 사극[11]이라고 하며 사전적 의미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서 제재를 빌려온 희극 또는 연극'이라 한다. 그 외에도 '역사극(歷史劇)', '시대극(時代劇)'등 여러 단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과거의 특정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설화 전설, 고전 소설 등 역사적 허구들을 극화시킨 영상물을 사극이라고 일컫는다.[12]

사극은 당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당시 배경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소품들을 이용하여 작품을 기획한다. 예를 들어, 배우의 외적인 의상, 분장, 장신구 등과 행동, 말투, 표정 등의 표현은 역사인물을 만들어내며, 특정사건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13] 따라서 웅장한 세트를 비롯하여 의상, 테크닉 컬러, 각본, 음악 선정과 촬영 등 모두가 기술적으로 완벽함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의상은 극중 인물이 처해있는 시대와 지역을 정확하게 고증, 재현되어 영화의 완성 또는 장면의 구성을 도와줌으로써 관객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 배경,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 등을 쉽게 인식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또한 배우의 성격묘사나 상징성 등도 함께 제시해주어야 한다.[14]

물론 시대극을 소재로 한 영화라도 영화 특성상의 현실과 가상의 설정이 공존

---

11) 황왕수 (1999). *Marcel Martin. Le Language Cinematographique.* 영상언어:다보문화, p.78.
12) 김지연 (2009). *'한국영상매체에 나타난 의상고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13) 조수현 (2010). *現代史劇에 나타난 明成皇后 服飾에 관한 硏究 -드라마'명성황후', 영화'불꽃처럼 나비처럼', 뮤지컬'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2.
14) 권현진 (1994).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Amadeus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0.

dCollection @ jeju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정 공간에서 만들어진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한 픽션들이 사용된다. 그중 의상은 정확한 고증에 의한 표현도 중요하지만, 스토리 전개상 다양한 표현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화라는 공간 안 에서의 의상은 고증을 바탕으로 재창조되어 관객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15]

결론적으로 시대극 영화에서 의상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특정시대와 공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시대의상은 그 시대의 의상 고증을 통해 영화상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속 픽션에 맞춘 영화의상으로 재해석되어 극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이미지가 내포되어야 한다.

15)김미성 (1999). *영화의상이 1990년대에 미친 영향 -1960년대~1990년대 영화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8~19.

dCollection @ jeju

2. 역사적 인물 고찰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ELIZABETH-THE GOLDEN AGE”는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이므로 극중 주인공들의 캐릭터와 의상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의 복식을 고찰하기로 한다.

2-1. 명성황후

2-1-1. 조선 후기의 역사적 배경

1864년에는 선왕 철종의 13세 조카인 익성군은 부친 대원군의 섭정 하에 고종으로 등극하였다. 2년 후 외척의 발호(跋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원군은 부인의 6촌인 민자영을 왕비[16]로 간택하였다. 열렬한 국수주의자였던 대원군은 철저한 쇄국정책을 고수하여 밀려오는 서양 오랑캐를 물리쳤지만, 1873년 고종이 성년이 되면서 민비의 막후 조정에 의해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7]

조선 시대 후기는 사회전역에서 임진(壬辰)·병자(丙子) 양란(兩亂)을계기로 가속화 된 변화현상이 초래되었다. 즉, 전쟁으로 인한 국가제도가 문란해졌고 신분제도 역시 해이(解弛)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부(富)를 향유한 중인(中人)계층이 등장하였다. 또한 유교윤리가 악화되고, 서민문예가 발달하였으며 실학사상(實學思想)이 대두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이후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실시한 대동법(大同法), 균역법(均役法) 등의 수취체제의 개편은 사업 자본을 축적하여 출현한 상인으로 인해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엄격하게 구축되었던 양반사회의 신분에 큰 변동이 일어났으며, 서양 문물과 천주교의 전래는 농민의식을 성장시켜 19세기 후반의 광범위한 민란의 정신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18]

---

16) 1897년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뀜에 따라 “명성황후”로서 추서되었다.
17) 고혜정 (2002). *舞臺公演에 나타난 扮裝에 관한 硏究 - 뮤지컬 ‘명성황후’를 中心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5.
18) 조수현. *앞의* 논문. p.7.

dCollection @ jeju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오랜 은둔을 마감하고 문호가 개방되었다. 이에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넘치게 되면서 수구파의 끊임없는 반발 속에서도 새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되어 여러 가지 개혁이 시행되었다.

1882년에는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필두로 여러 서양제국과의 협정이 잇따르게 되었다. 한편 수구파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민비는 용납할 수 없는 모든 변혁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일본상인들의 간교한 농간에 자극받은 조선은 극심한 반일감정이 쌓여 가고 있었다. 임오년(1882년)에는 구식군 병사들이 별기군의 특별대우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켜 일본인들을 살해하고 민비의 처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원군은 다시 권좌에 오르고 민비는 변장한 채 피신하여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청나라가 반란군 진압을 위해 파병하자, 민비는 다른 방책이 없자 부득이 원세개 장군과 내통하여 대원군을 청나라로 추방시키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십년간 조선을 무대로 펼쳐진 일본과 청나라의 각축전은 1894년 청일전쟁으로 절정에 이르나, 노쇠한 청나라는 떠오르는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고, 다음해 시모노세키 평화협정의 체결로 일본의 조선지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간주되었다. 청일전쟁 중에도 일본은 갑오경장을 강요하였고, 고종은 군림을 하나 통치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1895년 정월, 고종은 종묘사직에 주권회복을 엄숙히 선언하고, 민비와 더불어 러시아, 불란서, 독일을 회유하여 일본의 기득권 탈취를 골자로 하는 삼국간섭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그들의 대동아 공영권 구축을 위한 중요 교두보인 조선을 다시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19]

일본만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문호 개방에도 적극적이었던 민비는 일본에게는 결코 쉬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대 입장에 서있는 민비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일본의 신임전권공사 미우라 고호로는 일거에 대세를 뒤집어엎기 위해 "여우사

19) 두산세계대백과사전. www.encyber.com(을미사변)

dCollection @ jeju

냥"이라는 작전명 하에 민비의 암살계획을 수립하였고, 결국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궁중수비대와 상궁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비는 사무라이 다카하시 겐지의 칼에 의해 파란 많았던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다.[20]

이후 9년간 조선 땅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러일전쟁(1904년)으로 비화되었으나, 대마도 해협 해전에서의 결정적인 패배로 러시아는 무릎을 꿇게 되었고, 1905년 조선은 일본의 보조국이 되었다. 이후 1910년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어 연합국의 승리(1945년)에 이르기까지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21]

2-1-2. 명성황후 인물사

명성황후 민자영은 조선왕조의 명문가 여흥 민씨 가문 출신으로, 부친 민치록과 모친 한산이씨(韓山李氏)사이에서 태어났다. 실록에는 한창부부인이 신해년(辛亥年:1851년, 철종 2년) 9월 25일 정축일(丁丑日) 자시(子時)에 여주(驪州) 근동면(近東面) 섬락리(蟾樂里)의 자택에서 명성황후를 낳았다고 되어 있다.[22]

여흥민씨 가문에서는 조선 시대에만 이미 2명의 왕비를 배출하였다. 태종의 비 원경왕후와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그들이다. 원경왕후는 세종의 어머니이고 인현왕후는 명성황후의 직계 6대조인 민유중의 딸이자, 민진후(閔鎭厚), 민진원(民鎭遠)의 누이 동생이다.[23]

명성황후의 부친은 지방의 외직[24]을 두루 역임하다가 철종 9년 6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원래 민치록은 해주 오씨(민치록의 스승인 오희상의 딸)와 혼인을

20) 심수연 (2000).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그 의식의 변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21) 고혜정. *앞의 논문*. p.16 .
22) 이민원 (2007). 명성황후와 감고당. *역사실학회*, 32(-). p.702.
23) 이민원 .*위의 책*. p.702.
24) 관직은 장악원 첨정(종 4품)이었다. 과거에 합격하지는 않았으나 문음으로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여러 지방의 외직을 두루 역임한 것으로 밝혀진다.

dCollection @ jeju

하였으나 후사 없이 36세에 사망하였다.[25] 이에 한산이씨 가문에서 새 부인(한창부부인 이씨)을 맞아들여 1남 3녀를 두었다. 그러나 막내딸이었던 명성황후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일찍이 사망하였다.

명성황후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 언급되어 있다. 일찍이 학식이 있는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배우는 것마다 잘 습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8세에 부친을 여읜 후 서울로 이사와 살게 되었다.[26]

9세 때 흥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왕비에 간택, 책봉되었다. 민비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외척에 의해 국정이 농단(隴斷)된 3대(순조·헌종·철종) 60여 년간의 세도정치의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해 외척이 적은 민부대부인(閔府大夫人)의 집안에서 왕비를 들이고자 한 흥선대원군의 배려에 의해서였다.[27]

그러나 왕과의 금실이 좋지 못하고 궁녀 이씨에게서 완화군이 출생하자 이를 기뻐하는 흥선대원군과 대립하게 되었다. 내외정세가 긴박해지고 경복궁 중건 등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등 흥선대원군의 실정이 계속되자 명성황후는 고종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원군의 정적과 결탁하여 최익현의 대원군 규탄상소를 계기로 실각하게 만들었다. 그 후 민씨 척족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였고 근대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일련의 개화시책을 승인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는 왕궁을 탈출 충주목 민응식의 집에 피신하여 비밀리에 국왕과 연락하고 청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 환궁하게 되었다.[28]

다시 집권한 민비와 민씨 세력은 이때부터 친청사대(親淸事大)로 흐르게 되어 개화파(開化派)와 대립하게 되었다. 1884년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개화당 정부에 잠시 정권을 빼앗겼으나 청국 세력의 도움으로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때부터 민비는 외교적 국면에 매우 민첩하게 대응하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였다.

---

25) 이민원. *위의 책.* p.703.
26) 이민원. *앞의 책.* p.703.
27) 명성황후. 자료검색일 2010. 09. 11.
자료출처.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2384&ty=2
28) 심수연. *앞의 논문.* p53.

dCollection @ jeju

1885년에 거문도 사건(巨文島事件)이 일어났을 때 묄렌도르프(Mllendorf,P.G.)를 일본에 파견해 영국과 사태 수습을 협상하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와도 접촉하게 하였고, 또한 청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흥선대원군의 환국을 묵인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하였다.[29]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조선의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 적극적인 침략 공세를 편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민비 세력을 거세하려고 하였다. 민비는 일본의 야심을 간파하고 일본이 배후에 있는 개화 세력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진주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조선 정계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사세가 불리해진 민비는 친러정책을 내세웠다.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의 기세가 꺾이게 되자, 조선 정계의 친러경향은 더욱 굳어졌다. 이에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정책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민비와 척족 및 친러세력을 일소하고자 하였다.[30]

1895년 8월, 일본 군대와 정치낭인(政治浪人)들이 일부 친일 정객과 짜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왕궁을 습격해 민비를 시해한 뒤 정권을 탈취하는 을미사변의 만행을 저질렀다. 민비는 나이 45세에 살해되어 시체가 불살라지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친일정책을 펴 폐비조칙(廢妃詔勅)을 내렸다. 10월 10일 복위되어 태원전(泰元殿)에 빈전을 설치하고, 숭릉(崇陵) 우강(右崗)에 능호를 숙릉(肅陵)이라 하여 국장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1897년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존되고 난 후 11월 양주 천장산(天藏山) 아래 국장되어 홍릉(洪陵)이라 하였다.[31]

---

29) 명성황후. 자료검색일 2010. 09. 11.
자료출처.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2384&ty=2
30) 명성황후. 자료검색일 2010. 09. 11.
자료출처.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2384&ty=2
31)명성황후. 자료검색일 2010. 09. 11.
자료출처.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2384&ty=2

dCollection @ jeju

2-1-3. 명성황후 시대의 복식

조선 시대의 여자예복은 궁중을 중심으로 하여 생겨났으며 이것이 외명부 (外命婦)에게 적용이 되고 다시 사대부가에 전파되어 유행을 하게 되었다. 조선 왕조 여인의 예복은 중국에서 다양하게 많은 것이 들어와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적의, 노의, 장삼, 원삼, 활옷, 당의 등이다.[32]

(1)적의(翟衣)

조선왕조는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였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복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궁중여자 복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왕비, 세자빈, 대비 등 궁중여자 복식의 종류별 착용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적의는 왕비의 표식이 되는 복식으로 왕비가 착용하는 복식 중에서도 대례복(大禮服)으로서 다른 예복들과 구별되었다. 의례(依例)의 집전(執典)에 따른 궁중기록(宮中記錄)에 의해 조선 후기 궁중여자복식의 다양한 형태를 알 수 있다.[33]

왕비 치적의는 원적문(圓翟紋) 51개를 배치하였으며 하피를 두르고 보를 달고 있으며, 대수를 쓰고 있다. 완전히 우리 나름대로의 치적의인 것이다. 이는 국말까지 그대로 가다가 황후가 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대왕대비의 치적의는 모든 구성이 왕비의 것과 같고 다만 색만 자색 적의가 되었다. 왕세자빈은 아청색으로 하고 원적문을 36개 배치하였음을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34]

국말 고종이 황제가 되고 왕비가 황후로 칭해지면서 명 황후의 적의제를 그대로 조선 황후의 것으로 제정하였고 명 황태자비 적의제를 우리나라 황태자비의 것으로 하였다. 이것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문양의 등(等) 수의 차이가 있을 분이다. 황후 적의의 바탕색은 심청색이었고 깃과 도련, 수구에 홍색 선을 두르고 운

32) 안명숙, 김용서 (1996). *한국복식사*. 서울: 敎文社, p.116.
33) 조수현. *앞의 논문*. p.20.
34)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위의 책*. p.87.

dCollection @ jeju

룡문(雲龍紋)을 직금하였고, 황태자빈의 것은 심청색 바탕에 홍색 선을 수구와 도련, 깃에 둘렀으며 운봉문(雲鳳紋)을 직금하였다.[35]

심청적의는 중단(中單), 보(黼), 하피(霞帔), 폐슬(蔽膝), 옥혁대(玉革帶), 대대(大帶), 수(綬), 옥패(玉佩), 말(襪), 석(舃)으로 구성되어있다.[36] 중단은 옥색으로 하고 홍색 선을 두르고 깃 둘레에는 불문 13개를 직성하였다. 폐슬은 심청색으로 적문 3줄 사이에는 작은 이화문을 4줄 직성하였고, 아청색으로 연을 하고 운룡문을 직금하였다. 옥혁대는 청색 비단으로 하고 여기에 옥장식 10개와 금장식 4개가 장식되었고 운룡문을 그려 묘금하였다. 대대는 겉은 청, 안은 홍으로 하고 끝은 순홍으로 하여 늘여뜨렸다. 수(綬)는 훈색을 바탕으로 황·적·백·표·녹의 5색으로 직성하고 옥환 2개를 달고 대수와 같은 색의 소수가 3개 달려 있다. 옥패를 양옆에 차는데 위에는 금주 2개가 있고 후수와 같은 색의 소수가 옥패 받침으로 느려져 있다. 버선과 신발(석)은 청색 비단으로 되어 있다. 곡옥규는 길이가 7촌으로 위가 뾰족하고 곡문(穀紋)이 새겨져 있다. 아래의 손잡이는 황색 비단으로 싸고 황대(黃袋)에 넣어 있다.[37]

(2)원삼(圓衫)

조선 초기에는 왕비의 법복 외에 노의와 장삼이 예복으로 사용되어 왔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차츰 노의와 장삼이 집결되어 원삼으로 되었고 영조 때에 비로서 제도화되었다. 원삼[38]은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옷으로 다분히 국속화되었다고 본다. 왕비의 원삼은 현종(顯宗) 때 『명성후가례도감의궤』(1651년)에 처음 나온다. 홍색 길에 뒤가 길도 앞이 짧은데 보통 약 30cm 차이가 난다. 소매는 통이 넓고 수구에는 황·청 두 가지 색의 색동과 금직단의 백한삼이 달려 있다. 띠는 홍단으로 일곱자 길이이고 여기에 운봉문이 직금되었다. 최고의 무늬인 봉황무늬를 사용하고 있다. 밑의 남색 전행 옷치마 역시 봉황이 직금되어 있다.[39]

---

35)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앞의 책.* p.88.
36) 백영자, 최해율 (1993).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p.317.
37)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앞의 책.* pp.88-89.
38) 통일신라 제 30대 문무왕 4년 (664년) 중국 당나라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여 여복(女服)을 개혁할 때 활수(闊袖)이 포제(袍制)가 함께 들어왔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늘날의 원삼으로 되었다.
39)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앞의 책.* p. 93.

dCollection @ jeju

원삼은 조선시대의 왕비를 비롯한 궁중 내외명부들의 대례복인 혼례복으로 사용하였고, 조선후기에 와서는 일반인들의 혼례복으로도 허용되었다. 궁중양식의 원삼은 소매가 길고 넓은 대수형(大袖形)이며 옷의 길이도 길었다. 옆선은 당의처럼 곡선형이며 깃과 같은 동일한 색을 사용하였다.[40]

조선 중엽 이후 왕비의 원삼이 홍원삼이던 것이 국말에 이르러 왕비가 황후가 되면서 황후의 복색에 따라 황원삼이 되어 황색 길에 다홍색과 남색 색동과 흰 한삼이 달리고 홍색 봉황 대대에 오조룡(五爪龍)을 금수(金繡)한 원보(圓補)를 양어깨와 앞뒤에 붙였다. 그러나 왕실에서 경사로울 때는 소례복으로서 착용하고 쌍봉문(雙鳳紋)을 금수한 흉배를 앞뒤에만 달았다. 황태자비는 중기 후반의 왕비 원삼과 같은 홍원삼인데 안감이 황색으로 되어 있고 남색 선이 둘러져 있다. 노랑과 남색으로 색동을 하였고 흰색의 한삼을 대었다. 대대는 홍색 봉황무늬로 되어 있다. 머리는 어여머리로 하고 장식용 떨잠을 꽂는다.[41]

원삼은 신분에 따라 그 색과 문양에 따라 그 색과 문양에 차이가 있었다. 황후는 황색 길에 소매가 넓으며 끝에는 다홍색과 남색의 색동과 흰색 한삼을 달고 용문을 직금 또는 부금한 황원삼을 입었으며, 왕비는 다홍색 길에 노랑색과 다홍색 또는 남색의 끝동에 한삼을 달고 봉문을 금박한 홍원삼을 입었다. 빈궁은 자적색 길에 노랑색과 다홍색 끝동과 한삼을 달고 역시 봉문을 금박한 자적원삼을 입었다. 공주나 옹주는 연두색 길에 다홍색과 노랑색 끝동과 한삼을 달고 화문을 금박한 녹원삼을 입었다.[42]

(3)당의(唐衣)

당의(唐衣)[43]는 예복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면서 모양이 아름다운 옷으로, 궁중

40) 조수현. *앞의 논문*. pp.17-18.
41)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앞의 책*. p. 94.
42) 허명희. (1986). *"조선조 복식의 원삼과 활옷의 형태와 문양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00.
43) 『거가잡복고』에 "당의라는 것은 당대(當代)의 편복(便服)인 듯한데 우리나라 풍속이 우연히 이것을 본받아서 입었기 때문에 당의라고 이름한 듯하다"고 되어 있듯이, 원삼, 활옷 등과 마찬가지로 당(唐)의 복식

dCollection @ jeju

이나 양반층에서는 간이예복 또는 소례복(小禮服)으로 평복 위에 착용하였다.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다르게 하여 일년 내내 계속 착용되는 옷으로 비빈이 입는 직금 당의나 금박을 찍은 당의에서부터 민가(民家)의 예복으로 입는 민당의도 있다.[44]당의는 사용된 색에 따라 연두당의 · 자주당의 · 남송당의 · 백색당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연두당의이다. 겨울에는 주로 겹당의를 입고 여름에는 홑당의를 입었는데, 홑당의는 당적삼 · 당한삼이라고도 한다. 궁에서는 오월 단오 전날 왕비가 흰 당적삼으로 갈아입으면 단옷날부터 모두 당적삼으로 갈아 입었으며, 추석 전날 왕비가 다시 겹당의로 갈아입으면 추석날부터 궁중의 여자들은 일제히 겹당의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사절복색자장요람》에도 동지 전후에는 녹색 직금수복자당의, 정월 망일 전후에는 공단당의, 삼월 망일에는 녹색 항라당의, 오월 단오에는 초록 광사깨끼당의, 유월 순망간에 날이 몹시 더울 때는 저포당의, 팔월 십일에는 초록 깨끼당의, 팔월 이후에는 초록 광사당의, 구월 초하루부터는 항라당의, 구월 망일에는 공단당의, 시월 초하루에는 겹당의를 입는다고 하였다.[45]

당의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저고리 길이의 약 3배(약 80cm정도)이며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양 옆이 트이고 아래 도련이 아름다운 곡선을 이룬다. 연두색 비단 바탕에 홍색 안을 넣으며 자주색으로 왼쪽 당코깃에 두 장을 겹쳐 달고 오른 쪽에 짧은 고름을 한 장 단다. 옆은 솔기가 트여 있어 앞길의 좌우 두 자락, 뒷길이 한자락으로 모두 세 자락으로 되어있다. 또한 소매가 좁고 소매 끝에는 흰색의 거들지를 달았다.[46]

(4)저고리(襦), 치마(裳)

조선 후기의 저고리는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혜빈(惠嬪) 홍씨(洪氏)의 소생인 청

에서 유래된 것이다. 조옥례. (2000). 조선시대 궁중여인의 예복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3(3). p.27

44) 백영자·최해율. *앞의 책*. p.321.

45) 조효순 (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p.300.

46) 조수현. *앞의 논문*. p.14.

dCollection @ jeju

연군주(靑衍郡主)의 저고리와 헌수장군(憲洙將軍)의 부인이 만년(晩年)에 입었던 누비저고리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후기의 저고리의 특징으로는 저고리의 길이가 몹시 짧아졌고 품도 몸에 맞도록 입었다. 화장은 더 짧아졌으며 진동도 좁아지고 부리는 거의 반으로 줄었다. 깃은 목판깃에서 둥글어져 약간 당코깃 형태가 되었다. 깃과 안섶 · 겉섶 · 끝동 · 고대 등 각 부위가 모두 작아졌으나 곁마기는 커졌다. 고름은 겉고름의 길이가 길어졌고 동정은 더욱 좁아졌다.[47]

치마는 저고리 길이에 따라 치마허리가 허리를 웃돌아서 가슴에 올라오게 착용되었다. 이에 저고리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치마길이는 길어졌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복식의 변화가 커서 인체를 과장한 윤곽선을 나타내 계급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 하였다.[48] 또한 장치마, 위치마, 스란치마, 대란치마가 있는데 스란치마와 대란치마는 예복용(禮服用) 치마로 치맛단에 스란단을 붙여 만든 것이다. 여기에 금박(金箔)을 찍었다. 이는 궁중이나 반가의 높은 신분 여성들이 많이 입었는데 스란치마 위에 스란치마를 겹쳐 입기도 하고 민치마에 스란 웃치마를 덧입기도 하였다. 대란치마는 스란단을 두겹 붙인 것이다. 대란치마는 스란치마와는 달리 덧입지는 않았다.[49]

47) 안명숙, *앞의 책.* p.126.
48) 백영자, 최해율. *앞의 책.* p.290.
49) 백영자, 최해율. *위의 책.* p.291.

dCollection @ jeju

2-2. 엘리자베스여왕 1세

2-2-1.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시대적 배경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국의 르네상스는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엘리자베스 1세이 통치시대(1558-1603년)로 , 이 시대는 영국의 민주주의, 해상활동 그리고 경제적 번영 등으로 '메리 잉글랜드(Merry England)'라는 신화를 낳을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를 말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과 혼돈이 있었으며 특히 카톨릭과 신교의 대립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였다.[50]

영국의 황금기를 이루어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25세에 왕위에 올랐을 당시(1558)잉글랜드는 안팎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국내는 종교 소요가 끊이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는 프랑스 및 스코틀랜드와의 갈등을 빚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온건한 프로테스탄트[51]를 수립하고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와의 외교에서도 평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가를 안정시킬 방법을 모색하였다.[52]

종교면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집권 초, 온건한 중도노선을 걸음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급진적인 신교도들에게는 위협을 받았다. 1570년 2월에는 교황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파문 사건에 힘을 얻은 구교도의 저항이 거세졌다. 한 예로, 영국에 망명 중이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 1542-1587)가 가담하여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려 했던 배빙턴 음모(1586)가 적발되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3개월의 고민 끝에 자신의 사촌언니인 메리 스튜어트를 사형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교인 영국 성공회를 영국 사회에 점차적으로 확립시키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53]

---

50) 박춘순, 서미영, 서미희, 장은성 (2002),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의상분석, *충남생활과학연구지*,15(1). p.12.

51) 16세기 종교 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성립된 종교 단체 또는 그 분파를 통틀어 이르는 말

52) 이유진 (2008). *영화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의상디자인 표현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53) 나종일, 송규범 (2005). *영국의 역사.* 파주: 한울, p.303, 308-309.

dCollection @ jeju

경제적인 면에서 르네상스 시기는 영국의 산업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의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주변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통상정책과 해상활동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였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막대한 금과 은을 수중에 넣게 되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스페인 상선을 위주로 한 금, 은, 보화 약탈의 해상활동은 스페인의 영국침략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대외적으로 경제가 팽창되었다. 이로 인한 영국의 번영은 시장을 활발하게 하고, 부자가 된 상인과 시민계급의 토지구입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신분에 대한 파괴와 더불어 질서의 파괴, 경제권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왕권과의 결탁으로 출현한 부르주아 상인은 새로운 신흥귀족으로, 유럽의 복식 문화를 이끈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54]

문화면에서 여왕은 문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와 같은 위대한 문인들의 활동으로 국민 문학이 발달하여 영국민들의 자긍심은 한층 더 높아졌고 영국 르네상스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55]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 여왕 집권 시기에 영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여 해상 대국으로 떠올랐고 개신교의 수호자로 유럽 대륙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종교와 식민지 정책에 있어 대립양상을 보이는 스페인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56]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메리 스튜어트의 처형을 이유로 영국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Invincible Armada)를 출정시켰다. 종교와 정치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에서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찌름으로써 유럽의 막강한 해상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영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의 시기를 (The Golden Age)를 맞게 되었다.[57]

---

54) 박춘순, 서미영, 서미희, 장은성. 앞의 논문. p.12.
55) 박지향 (199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p.294.
56) 박지향. *위의 책*. p.294.
57) 권혜수 (2007). *영화 <ELIZABETH-THE GOLDEN AGE>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dCollection @ jeju

2-2-2.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인물사

엘리자베스는 축복이 아닌 실망과 질시 속에서 탄생하였다. 아버지 헨리 8세(Henry Ⅷ)는 왕비인 캐서린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 메리만 살아남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원해 왕비와 이혼하고 앤 볼린(Anne Boleyn)과 결혼하기 위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원하던 아들 대신 딸이 태어나고 앤이 다음해 아들을 사산하자 헨리는 엘리자베스가 2세 때 어머니 앤을 간통죄로 처형하였다.[58]

1553년 7월 6일 에드워드 6세가 죽은 후 7월 19일에 메리 1세가 즉위하였다. 메리 1세 여왕은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복귀시키고자 카톨릭 교도인 스페인왕 펠리페 2세(Philip Ⅱ)와 결혼하였고, 이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메리 여왕 밑에서 프로테스탄트였던 엘리자베스의 위치는 매우 위태로워졌다. 1554년 1월에 토머스 외이엇(Thomas Wyatt)경이 반란을 일으킨 뒤, 엘리자베스도 1554년 3월 18일에 체포되어 런던 탑(Tower of London)에 갇혔고, 2개월 뒤 그녀는 무죄로 풀려 나왔다.[59]

엘리자베스는 어렸을 때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기껏해야 외국 군주의 배우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잇단 이복형제들의 짧은 치세로 인해 25세의 젊은 나이로 여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악조건은 여러 가지였다. 우선 여성이며 미혼이었다는 사실은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여기던 당시 분위기에서 평생 약점으로 남았다.[60] 여왕은 수장령(Acts of Supremacy)[61]과 통일령(Act df Uniformity)[62]을 부활시켜 국왕을 종교상의 최고 권위로서 인정받도록 하였고, 동시에 전 국민에게 국교회의 의식과 기도서를 강제로 지키게 함으로써 국교의 확립을 꾀하였으며 카톨릭과 청교도를 억압하여 종교적 통일을 추진하였다.

---

58) 박지향 (2004). '처녀왕' 엘리자베스의 신화. *영국 연구* .11(-). pp.30-31.
59) 조윤영 (2001). *영화의상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로브에 대한 표현효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
60) 박지향. 위의 논문. p31.
61) 영국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국왕을 영국 교회의 '유일 최고의 수장'으로 규정한 법률
62) 영국국교회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의식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영국 의회가 1549~1562년까지 4차에 걸쳐 제정·공포한 법률

dCollection @ jeju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자 후계자 출산에 적당한 남편을 구하는 것이 당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여왕의 신랑감은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립되고 군사적으로 허약한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으로 강력한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종교였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Philip Ⅱ),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The Archduke Charles), 스웨덴의 에리크 14세(Prince Eric of Sweden), 윌리엄 피커링(Sir Wiliam Pickering), 나중에 프랑스 왕이 된 앙주 공작 앙리(Henri, Duke of Anjou), 마지막으로 여왕이 40대였을 때 10년 동안이나 결혼 얘기가 오간 알랑송 공작 프란시스(Francis, Duke of Alencon), 또는 앙주공작(Duke of Anjou)을 비롯한 여러 후보자들이 구혼자로 나섰다. 엘리자베스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영국이 약해지거나 연맹이 필요할 때 결혼 얘기를 꺼내어 관계를 유지해나가기도 했다.[63]

156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 엘리자베스에 의해 감금된 메리 여왕(Mary Stuart, Queen df Scots)은 엘리자베스 다음의 왕위 계승자였다. 메리 여왕을 내세워 엘리자베스 여왕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세력은 1569년에 완강하게 카톨릭 신앙을 고수하는 잉글랜드 북부지역의 반란과 1571년의 '리돌피 음모(Ridolfi ′s conspiracy)'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놀포크(Duke of Norfolk)를 비롯한 그 추종자들은 모두 사형 당했다. 그 후 1586년에 또 다른 엘리자베스 암살 음모인 배빙턴 음모(Bebington conspiracy)를 적발되었고 메리 여왕이 깊이 관련되었음이 밝혀졌다. 결국, 1587년 2월 8일 메리 여왕은 참수 당했다. 오랜 시간 엘리자베스는 프랑스 및 스페인과 복잡한 외교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1580년대 중엽에 이르러 스페인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왕은 충분한 자금을 들여 기동력이 뛰어나고 충분한 무장을 한 함대를 갖추었고, 1588년 7월에는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잉글랜드 해역에 침투했을 때, 드레이크(Sir Francis Drake)와 호킨스(Sir John Hawkins)가 지휘한 여왕의 배들은 적군을 무찔러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전의 하나로 기록되었다.[64]

이와 같은 스페인 무적함대의 격퇴는 가톨릭 신앙의 대변자인 스페인을 개신교

63) 조윤영. *앞의* 논문. pp.5-6.
64) 조윤영. *위의* 논문. pp.6-7.

dCollection @ jeju

잉글랜드가 격파한 위대한 사건이며, 잉글랜드 국민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마다 전쟁 에서 국가의 '처녀 어머니'로서 최고 지휘관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대신들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나는 나의 신민들을 믿노라. 나는 즐거움을 위해 이곳에 온것이 아니라 그대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 위해 왔노라." 실제로 여왕의 연설은 병사들의 애국심에 불을 붙일 정도로 충분한 설득력을 포함하고 있었다.[65]

여왕의 치세 중 영국은 해상 발전의 길이 트이게 되어 한 섬나라에서 대해상국으로 성장할 기초가 이루어졌다. 드레이크, 월터 러리(Sir Walter Raleigh), 존 데이비스(John Davis), 존 카벤디시(John Cavendish)등은 항해를 하며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냈고, 그 결과 1600년에 영국의 동인도회사 설립이 이루어졌다.

문화면에서도 영국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국민 문학의 황금시대가 도래하여 셰익스피어(Shakespeare), 말로(Marlowe), 베이컨(Bacon)등의 학자들이 속출하였다. 여왕은 자신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영국 안팎에 나도는 초상화를 통제하려고 애썼고, 대중 앞에는 항상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엘리자베스의 오랜 통치도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1603년 3월 24일 엘리자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1세(James Ⅰ)를 후계자로 지명한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66]

65) 박지향. *앞의* 논문. p41.
66) 조윤영. *앞의* 논문. p.7.

dCollection @ jeju

2-2-3.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시대의 복식

르네상스 시대에는 직물 산업의 발달과 금, 은 색실을 사용한 자수 기술의 발달, 다양한 레이스가 개발 되면서 복식이 더욱 다양하고 화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선호하여 슬래시를 다양하게 응용하였고 다양한 칼라와 소매 모양이 나타났고 물결치는 듯한 러프와 여러 층의 주름은 리듬감이 표현되었다. 타이트한 상의와 부풀려진 하의로 볼륨감을 살려줌으로써 대비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과장된 실루엣과 화려한 장식이 어울려 외형의 엄격한 위엄은 물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의복이라기보다 하나의 인위적인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67]

(1) 로브(robe)

꼬따르디(cotehardie)가 변형된 의상으로 가운 또는 드레스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원피스드레스 같지만 구성상 투피스로 되어 있다.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져 마루에 끌릴 정도였고 스커트의 모양은 페티코트를 입어 원추형이나 원통형으로 이루어졌다. 16세기 중엽부터는 목둘레선이 가슴 깊이 파진 데꼴떼(décolleté)에다 패드로 부풀린 소매가 달렸으며, 가슴과 허리는 코르셋으로 조이고 스토마커로 화려하게 강조했다. 원형의 러프나 부채형의 메디치 칼라(medici collar)나 퀸엘리자베스 칼라(queen elizabeth collar)가 이 시대의 로브의 특징이다. 드레스는 부풀린 소매, 장식 소매, 코르셋의 역할을 담당한 바디스, 역삼각형의 스토마커, 언더스커트, 아웃스커트 등 여러 부분이 모두 분리되어 재단, 장식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하여 입음으로써 다양성을 살릴 수 있었다.[68]

①러프(Ruff)

러프는 르네상스시대를 특징짓는 유일한 요소 중에 하나로, 러프가 갖는 우아한

67)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9). *복식문화*. 서울: 敎文社. p.121.
68) 정흥숙 (1995). *服飾文化史 -西洋服飾史-*. 서울: 敎文社, pp.137-138.

dCollection @ jeju

선과 규칙적으로 배열된 주름의 리듬은 의상 전체에 주어진 실루엣과 리듬의 조화를 잘 이루어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이 러프는 16세기 르네상스 전성기에 풀을 먹여 정교하게 S자로 주름잡은 높고 둥근 칼라를 말하며, 러플(ruffle)로도 표현되는데 러플은 물결치는 듯한 주름 칼라를 말한다. 초기의 러프는 작은 형태의 것이었으나 1560년대에는 러프 가장자리에 레이스 장식이 달려 화려하고 정교한 형태로 발달되어 갔다. 러프의 색은 물의 색깔에 따라 흰색,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 녹색등이 있었으나 흰색과 푸른색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러프는 계급의 상징이었으므로 모든 여성이 착용하였으나,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자 여성은 데꼴테로 가슴 부위를 드러내어 성적매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르네상스 말기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당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패션계에서도 가장 앞장서 가는 패션 리더였다. 그녀는 종전의 둥근 러프와 부채모양의 메디치 칼라를 합한 것과 같은 타원형의 부채모양을 한 거창한 러프 칼라를 애용하였다. 후에 이 러프는 그녀의 이름을 붙여 퀸엘리자베스 칼라라고 불린다. 이 스타일은 미혼 여성에 의해 입혀졌으며, 여기에 어깨 위로 철심을 댄 거즈 베일인 버터플라이 윙(Butterfly Wings)이 더욱 화려해졌다. 이러한 메디치 칼라나 퀸엘리자베스 칼라는 1620년까지 유행하였다.[69]

②소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르네상스 의상에서 소매의 화려함이 환상적인 아름다움과 커다란 변화를 준 요인이라고 하였다. 소매를 될 수 있으면 특이한 모양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패드를 넣어 퍼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의 다른 실루엣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슬래쉬(slash)이다. 슬래쉬 사이로는 화려한 속옷이 보이기도 하고 가장자리를 자수나 보석으로 장식하는 등,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마치 옷에 여기저기 핀 꽃을 연상 시킨다. 르네상스 시대의 소매 모양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양 다리(leg of mutton) 모양이 많이 애용되었다. 이것은 어깨부터 팔꿈치 위까지 고래수염이나 가는 철사 등으로

69) 이유진. *앞의* 논문. pp.18-19.

dCollection @ jeju

만든 패드를 넣어 부풀리고 팔꿈치부터 손목의 진동까지는 팔에 꼭 끼게 만드는 디자인이다. 소매의 디자인이 복잡해지자 구성과 착용에도 불편하여 1540년경부터는 소매를 분리 시켜 제작하여 스토마커와 같은 바탕의 천과 짝을 맞추어 입었다. 따로 구성된 소매는 어깨와 진동에서 드레스의 몸체와 끈으로 결합시켰는데, 이때 결합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에뿔렛(épaulette)을 달았다. 이것은 윗진동선을 따라 둥글게 패드를 넣어 만든 것으로 슬래쉬와 자수, 보석 등으로 장식했다.[70]

③스토마커(Stomacher)

꼬르베께(corps-piqué) 나 바스켄(basquine) 위에 가슴과 아랫배에 걸쳐 역삼각형으로 붙인 장식 가슴받이를 말한다. 이것은 두꺼운 린넨이나 코튼에 풀을 먹여 밖으로 둥글게 입체감을 내면서 평평하게 만들며 pad를 넣어 형을 유지하게 했다. 겉은 화려한 silk나 금실을 넣어 짠 것을 주로 사용했다. 이 스토마커는 로브 중에서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들은 서로 경쟁해 가면서 진귀한 보석과 화려한 자수로 장식을 했다.[71]

④슈미즈(Chemise)

좁은 튜닉형의 원피스 드레스로 속옷을 말하는데 슈미즈의 목둘레선에 댄 프릴이나 러플이 로브의 네크라인 속으로 보이게 하다가 차차 목 근처로 올라가면서 앞가슴을 가리는 파트렛(partlet)을 형성했다. 소매는 좁고 길며 손목 둘레를 러플로 만들어서 로브의 소매 속으로 보이게 했다.[72]

⑤파팅게일(farthingale)

70) 정홍숙. *앞의 책.* pp.138-139.
71) 정홍숙. *앞의 책.* pp.140-141.
72) 정홍숙. *위의 책.* p.147.

dCollection @ jeju

스페인식 파팅게일은 등나무(cane)나 종려나무의 줄기, 고래수염(whalebone), 또는 쇠줄 등으로 둥글게 크기가 다른 틀을 만들어 린넨이나 면 밴드로 감은 후, 풀먹인 린넨 속치마에 꿰맨 것이다. 이때 작은 사이즈의 틀은 위에, 큰틀은 속치마 아랫단에 배치하여 벨 모양의 버팀대로 만들었다. 속치마는 린넨외에 얇은 울이나 실크를 사용했고 때로는 안감도 댔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파팅게일 중에는 실크 타프타와 새틴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16세기 후엽에 이르러 파팅게일은 더욱 팽창되어 원통형의 훨 파팅게일이 된다. 훨 파팅게일을 사용하면 스커트를 가는 허리에서 직각으로 크게 벌릴 수 있으므로 당당한 박력과 위엄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73]

(2)코트(Coat)

로브 위에 입는 코트는 추울 때나 정식 모임에 나갈 때 착용하였다. 상체는 넉넉히 맞고 허리부터 스커트 부분은 풍성한 실루엣을 이룬다. 목선에서 허리까지 또는 목선에서 스커트 단까지 가는 리본등이 달렸는데, 앞트임의 절반 내지 전부를 열어 놓아 속의 로브를 잘 보이게 하기도 했다. 여기에 쓰인 옷감은 새틴, 타페타, 서어지, 벨벳, 금·은 실을 넣어 짠 브로케이드 등 화려한 재료와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했다. 겨울에는 모피를 안에 대기도 했다.[74]

73) 정홍숙. *위의 책*. pp. 146-147.
74) 정홍숙. *앞의 책*. pp. 147-148.

dCollection @ jeju

Ⅲ. 영화의 내용과 주인공의 의상 분석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Elizabeth: The Golden Age' 영화 줄거리와 극중 인물 분석을 토대로 두 주인공의 영화의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의상은 극의 스토리 전개 상 두 주인공의 공통적인 캐릭터가 표출된 장면들에서 유추된 다섯 가지 이미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둘째,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셋째,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 넷째,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상황의 이미지가 표출된 의상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명성황후

1-1 '불꽃처럼 나비처럼' 영화 줄거리

19세기 말에는 제국주의 열강은 천주교와 신문물을 앞세워 동아시아로의 식민지 정복을 확대한다. 조선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아버지 대원군은 강한 쇄국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다. 그러나 온 나라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으로 개혁과 보수의 갈등에 휘말리고 대원군은 왕권강화를 위해 왕후 간택을 서두르게 된다.[75]

훗날 명성황후가 된 민자영(수애 역)은 황후 간택으로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다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곳으로 가던 중 항상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의 곁을 지켜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자객으로 살아가던 무명(조승우 역)이다.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피비린내에 찌든 자신과 너무나

75) '불꽃처럼 나비처럼' 자료검색일 2010.09.07.
자료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7865

dCollection @ jeju

다른 여인, 민자영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곧 왕후가 될 몸으로, 며칠 후 '고종'과 '민자영'의 혼례가 치러진다. 무명은 왕이 아닌 하늘 아래 누구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민자영을 죽음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하고, 입궁 시험에 통과해 그녀의 호위무사가 되어 주변을 맴돈다. 한편, 차가운 궁궐 생활과 시아버지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던 민자영은 무명의 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외압과 그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한 명성황후의 외교가 충돌하면서 그녀를 향한 무명의 사랑 또한 광풍의 역사 속으로 휩쓸리게 된다.[76]

일본은 명성황후와의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그녀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일본의 칼날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대항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의 앞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지막까지 그 칼날 앞에 명성황후를 지키려는 무명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의 칼과 총 앞에서 명성황후를 지켜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무명은 명성황후 앞에서 끝까지 그녀를 지켜내다 생을 마감한다. 결국 홀로 일본 세력 앞에 마주한 명성황후는 조선의 국모로서의 위엄을 지닌 채 그들의 칼날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

1-2 영화 속 명성황후 민자영 인물 분석

역사적 사건에 픽션을 가미한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 명성황후 '민자영'은 가녀린 여인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황후 간택이 이뤄지고, 고종의 비로 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녀는 일반 여인들과는 다른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깊을 땐 홀로 바다를 찾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더 넓은 세상을 보려하였다. 대원군의 계획으로 황후가 된 민자영에게는 여인으로서만 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여인이지만 사대부적인 울타리 안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고와 서양 문물

76) '불꽃처럼 나비처럼' 자료검색일 2010.09.07.
자료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7865

dCollection @ jeju

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었다. 서양의 많은 문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였고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하였다. 훗날 쇄국정책을 주장하는 대원군과의 견해차로 인한 정치적 대립을 하게 되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고종의 우유부단함과 정치 외교적으로 일본이 개입함으로써 두 세력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남성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보여 주었다.

명성황후는 궁에 들어온 후 고종으로부터 여성으로써 외면을 당하였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그녀를 소중히 여긴 무명이라는 호위무사를 곁에 두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그녀의 분신이 되어 지켜주는 무명 앞에서는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었다. 명성황후는 무명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면서도 그를 거부하며 고종의 왕비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아니라 한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모로써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명성황후는 일본과 대립하게 되었고, 일본은 자국의 입장과 달랐던 명성황후를 암살하기에 이르러 무참하게 그들의 칼날이 명성황후의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 명성황후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건 대항이 있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죽음과 마주한 명성황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의 국모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수많은 총칼 앞에서 당당하고 위엄있는 모습으로 맞섰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고 운명을 받아들인 명성황후의 모습은 가녀린 여인이 아닌 조선의 국모였다.

dCollection @ jeju

1-3 의상 분석

극 중 명성황후의 의상은 총 17벌이며, 극 중 스토리 전개상 유추된 이미지에 따라 선별된 7벌의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원군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정치에 참여하는 명성황후의 모습이 표현된 장면에 착용된 의상 2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 녹당의와 보라색 대란치마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2> 분홍저고리와 보라색 치마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1>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신료들과의 연회에 고종과 함께 참여한 명성황후의 모습으로, 궁에 입궐한 후 정치 참여에 대해 대원군의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명성황후는 대원군에게 논리적인 대

dCollection @ jeju

응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여러 신료들 앞에서 대원군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명성황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장면이다.

<그림 1>의 의상에서는 홍색 고름, 자색 깃과 소매 끝에는 흰 거들지가 달린 녹당의와 보라색의 대란치마, 용비녀와 첩지를 착용하고 있다. 당의에는 양 어깨와 앞가슴에 금사 용 무늬 보가 있다. 형태는 고증에 의한 구성이고, 고증에 의하면 녹당의에 홍색치마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한 카리스마 이미지 연출을 위해 보라색 대란치마를 착용시킨 것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서는 복식의 색상으로 보라색을 많은 부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극적 이미지 표현을 위한 재해석이라 사려된다. 이는 서양 고대시대부터 보라색에는 황제, 왕권, 왕실, 존귀함등의 권력의 색[77]의 상징적 의미를 차용한 듯하다. 이와 더불어 왕권의 상징인 용무늬 보를 양어깨와 앞가슴에 장식하였고 양 팔에는 연꽃 문양의 금박을 장식하였다. 연꽃 문양은 명예, 군자의 상징적인 꽃[78]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왕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문양과 색상을 사용함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강인한 명성황후 카리스마를 표현하였다고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대원군과의 대립 속에서도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사려되며, 이를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강인한 카리스마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2>는 입궐한 후 대원군의 견제에도 개의치 않고 각국 대사 부인들과 연회를 여는 장면으로, 각국 대사들과 서양 문물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즉, 각국 대사 부인들의 통역관을 통해 다양한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각국의 대사 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채우려는 명성황후의 모습이다.

---

77) 전영심 (2008). 파주 *보라색의 상징성 연구 -서양 복식을 중심으로-*. 파주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7.
78) 정혜린 (2006). *조선시대 여자복식에 나타난 꽃문양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8.

dCollection @ jeju

이 장면에서 착용한 의상을 분석해보면, 연회임에도 불구하고 소례복 차림이 아닌 일상복 차림인 기본적인 저고리, 치마로 구성된 영화의상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다시 말해서 극 중 상황이 각국 대사 부인들과의 연회 장면이므로, 왕비라면 예복인 적의, 원삼, 당의 등을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편한 소례복인 당의조차도 착용하지 않은 저고리 차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격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인 명성황후의 성향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라고 사려된다.

형태는 조선 후기의 가슴까지 올라오는 짧은 저고리이다. 색상은 분홍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에 홍색 고름과 자색으로 깃과 소매 끝을 장식 하였다. 극 중 의상에서는 분홍색을 사용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서양과의 교역에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다양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성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양 어깨에 금사 용 무늬 보를 달아 줌으로서 왕비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꽃 자수 장식을 통해 연회의 화려함을 표현하였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왕비의 위엄이라는 전제 하에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개방정신은 물론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동시에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표 2>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대원군과의 연회 장면. · 정치에 참여하려는 명성황후의 의지 표현.	· 각국 대사 부인들과의 연회 장면. ·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명성황후의 외교적 성향.
극중 의상		
고중 의상		
	<그림 1-1>덕혜옹주 당의, 옷과 그들. p194.	<그림 2-1> 개항기 여인. 옷과 그들. p.221.
극중의상 분석	· 녹당의와 보라색 대란치마 착용 · 용무늬 보와 연꽃무늬 금박 장식 · 왕권을 상징하는 색과 문양을 사용함으로서 강인한 카리스마 표현	· 분홍저고리와 보라색치마 착용 · 용무늬 보와 꽃 자수 장식 · 부드러운 색상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착장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 표현

⇩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dCollection @ jeju

2)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왕비로서의 지위와 일반적인 여인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흔들리는 명성황후의 내면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2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3>은 명성황후가 무명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다.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는 무명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명성황후와 무명 단둘이 며칠을 지냈다는 일을 빌미로 대원군 측에서 고종을 향한 정치적 싸움을 시작한다. 이에 고종을 비롯한 대신들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무명을 내세울 것을 주장하고 명성황후는 무명에게 대원군 앞에 서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무명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다.

<그림 3> 청색 장포와 보라색 대란치마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4> 보라색 당의와
남색 대란치마
<불꽃처럼나비처(2009)>
DVD.

<그림 3>에서 착용한 의상을 분석해 보면, 장포와 대란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dCollection @ jeju

보라색 깃과 거들지가 달린 청색 장포에 보라색 대란치마, 보라색 비녀를 착용하고 있다. 장포의 형태를 살펴보면 깃의 형태는 두루마기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길의 형태는 원삼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두루마기와 원삼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제작한 것이라 사려되며, 장포에 사용된 청색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상징체계에서 여성적인 색[79]이었다. 이러한 청색을 사용하고 문양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극 중 명성황후의 심리를 표출하기 위함이라 사려된다. 이러한 포 형식에 궁중 여자 복식인 대란치마를 함께 착용한 것은 형식상 맞지 않는 것이나 명성황후의 여성으로서의 심리와 왕비로서 심리를 이중적 표현한 것이라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민자영을 사랑하는 한 남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인으로서의 마음과 정치적인 분쟁 속의 왕비로서 명성황후의 위치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는 을미사변당시 일본에 의한 명성황후 암살계획이 드러나고 이를 알게 된 무명은 명성황후를 찾아가 궁을 떠나야 한다고 청하는 장면이다. 명성황후는 남아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성들을 버리고 궁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목숨처럼 아끼는 무명과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과 한 나라의 국모로서의 책임감을 버릴 수 없는 명성황후의 내적 갈등이 묘사된 장면이다.

<그림 4>에서 착용된 의상을 분석해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임에도 피신하기 위한 변복 차림이 아닌 소례복인 당의 차림이다. 이는 일본의 침략 앞에서도 국모의 자리를 지키려는 명성황후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사려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는 보라색 당의와 남색 대란치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라색 당의에는 홍색 고름과 청보라색의 깃,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지가 대어져 있다. 양 어깨와 앞뒤에 금사 용 무늬 보를 달고 금박 장식이 찍혀 있다.

79) 김혜원 (2008). *색의 상징성과 우리말 표현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3.

dCollection @ jeju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일반적인 당의의 색상은 녹색이나, 극 중 당의의 색상은 보라색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명성황후의 불안함과 무명과 함께 떠나고 싶은 심리적인 갈등을 표출하기 위해 색상의 상징적 의미를 차용한 듯하다. 즉 보라색은 강함과 약함, 희망과 절망등의 상반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성의 색[80] 으로 명성황후의 이중적 심리를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사려된다. 또한 용무늬 보를 이용해 현실의 국모로서의 위상을 직접 상기시켜주는 등의 이중적인 내면의 갈등을 표출한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민자영을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함께 하고픈 여인으로서의 마음과 한 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의 위치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80) 전영심. *앞의 논문*. p.54.

dCollection @ jeju

<표 3>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table>
<tr><td>극중상황
및
심리상태</td><td colspan="2">· 무명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
· 무명을 보호하고픈 여인의 마음과
왕비로서의 정치적 심리가 공존함</td><td>· 일본에 의해 암살계획이 드러나고
무명이 도피하기를 청하는 장면
· 나라를 버리고 도피하지 않겠다하나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함</td></tr>
<tr><td>극중 의상</td><td colspan="2"> </td><td> </td></tr>
<tr><td rowspan="2">고증의상</td><td> </td><td> </td><td> </td></tr>
<tr><td><그림3-1>두루마기.
우리옷이천년. p.129.</td><td><그림3-2>윤황후원삼
옷과 그들. p. 169.</td><td><그림 4-1>덕혜옹주 당의,
옷과 그들. p194.</td></tr>
<tr><td>극중의상
분석</td><td colspan="2">· 청색 장포와 보라색 대란치마 착용
· 절제된 장식
· 격식에 맞지 않는 착장과 절제된 장식, 색상으로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td><td>· 보라색 당의와 남색 대란치마
· 용무늬 보와 금박 장식
· 중성의 색상을 사용하여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td></tr>
</table>

⇩

이중적 내면의 갈등

dCollection @ jeju

3)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의 이미지

정치적 대립에서 어머니를 잃은 명성황후의 슬픔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1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5, 6>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들은 명성황후가 오열하는 장면이다.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정치적 대립이 있던 중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원군의 측근들이 명성황후의 어머니를 살해하기 이르렀다. 이에 명성황후 자신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며 오열하는 장면이다.

<그림 5> 꽃수 장식의 저고리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6> 연보라색 저고리와 보라색 대란치마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5, 6>에서 착용한 의상을 분석해보면 형태는 조선 후기의 가슴까지 올라오는 짧은 저고리와 대란치마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보라색 저고리에는 홍색 고름과 자색 깃,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지가 달려있으며, 대란치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 극 중 의상에서는 연 보라색과 짙은 보라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라색으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죽음에 극에 달하는 슬픔을 표출하기 위한 재해석이라고 사려된다. 여기에서의 보라색은 죽음과 연약함, 우울 공포등의 정서와

dCollection @ jeju

연관된 슬픔의 색[81]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명성황후의 슬픈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 듯하다. 또한 왕비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 어떠한 장식도 배제하고 단지 꽃모양의 수 장식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왕비로서의 모습보다는 어머니를 잃은 슬픈 딸의 모습을 부각시켰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명성황후의 모습이 아닌 어머니를 잃은 딸의 극도의 슬픔을 지닌 심리상태를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슬픔의 표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81) 전영심. *앞의 논문*. p.54.

dCollection @ jeju

<표 4>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의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정치적 싸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장면. ·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극도의 슬픔을 겪는 심리 상태
극중 의상	
고증의상	 <그림 5-1> 개항기 여인. 옷과 그들. p.221.
극중의상 분석	· 연보라색 저고리와 보라색 대란치마 · 꽃모양의 수 장식 · 슬픔을 상징하는 색상과 간소화된 문양으로 슬픔을 표현

⇩

슬픔의 표상

dCollection @ jeju

4)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의 이미지

대원군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강인하게 맞서는 명성황후의 모습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1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7, 8>은 대원군을 포함한 대신들과 각국의 대사들과 함께하는 전기점화식 행사에 참여한 장면이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들은 직 후에 참석하게 된 행사로 마음껏 슬퍼하기도 전에 슬픔을 감추고 참석해야 하는 자리이다. 극도의 슬픔을 감춘 채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원군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나서는 장면이다.

<그림 7> 흰원삼과 홍색치마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8> 화려한 금사 장식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7, 8>에서 착용한 의상을 분석해보면, 앞서 본 각국 대사 부인들과 한 연회 장면에서의 간편한 차림과는 달리 정식 예복인 원삼을 착용한 모습이다. 이는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는 세력에게 왕비로서의 근엄한 위엄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라고 사려된다.

dCollection @ jeju

형태는 원삼의 형식으로 색상은 흰색 길에 홍색 대와 붉은 색의 색동으로 구성되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왕비의 원삼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홍원삼을 착용했다고 하나, 극중 의상에서는 흰색 바탕에 금사로 전체를 수놓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황원삼 인 듯 보인다. 원삼의 형태를 재현하였지만 치마·끝동·대·족두리(어염 족두리)에 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한삼에는 더욱 화려한 금사 장식을 하였다. 화려한 금사와 이와 대조적인 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화려한 장식이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원삼의 색동으로 사용한 홍색은 태양과 모든 전쟁의 신을 나타내며 남성원리, 왕의 위엄[82]을 내포한 색상이며 더불어 흰 원삼에 전체적으로 수놓아진 금사는 황색으로 높고 귀함의 상징이면서 경고의 상징[83]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립 세력에게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응대하려는 명성황후의 확고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심리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슬픈 마음이 크지만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꾸민 반대 세력에 대해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며 정치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명성황후의 모습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강인함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82) 김혜원. *앞의* 논문. p.11.
83) 김혜원. *위의* 논문. pp.17~18.

dCollection @ jeju

<표 5>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의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전기 점화식에 참석한 장면. · 어머니의 부고소식을 전해들은 직후 그 배후 인물들이 참석한 자리에 슬픔을 누르고 그들 앞에 나선 강인함이 보임
극중 의상	
고중의상	 <그림7-1> 윤황후 원삼. 옷과 그들. p. 169.
극중의상 분석	· 흰원삼과 홍색치마 · 전체적인 금사 장식에 홍색으로 포인트를 줌 · 위엄, 높고 고귀함, 경고의 상징인 색상과 장식으로 강인함 표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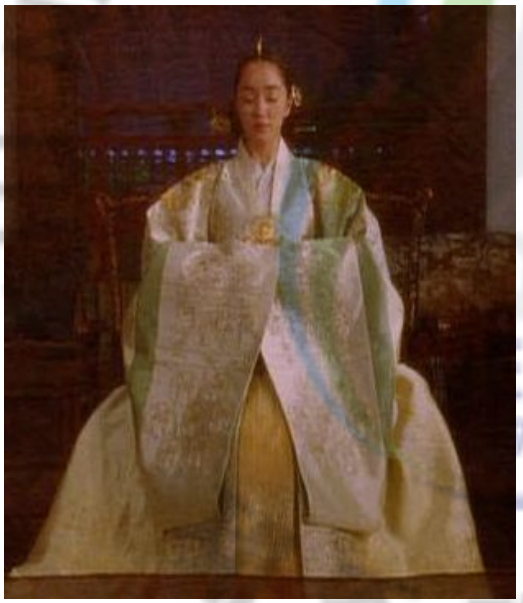
강인함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dCollection @ jeju

5)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의 이미지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 시해 당시 모습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1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9, 10>은 을미사변당시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장면이다. 사변당시 고종은 정치 외교적 이유를 내세우며 궁을 침범하는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자신들과 의견이 달랐던 명성황후를 시해할 계획을 세우고 을미사변으로 이를 시행에 옮긴다. 일본의 칼날 앞에 무명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명성황후를 지켜내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명성황후는 홀로 일본의 칼날 앞에 서게 되는데 생사의 기로에서도 그 국모로서의 위엄만은 잃지 않는다.



<그림 9> 흰원삼과 황색 치마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10> 금사 장식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그림 9. 10>에서 착용한 의상을 분석해보면, 형태는 원삼 형식이며 흰색 바탕에 금사로 장식하였고 전체적인 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하였다. 대와 끝동에도 색을 넣지 않고 흰색에 금사로만 장식을 하였으며 머리장식도 최소화 하였다. 앞

dCollection @ jeju

서본 전기점화식의 홍색으로 포인트를 준 원삼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흰색에 금사로만 장식을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원삼의 흰색은 흑색과 함께 음(陰)에 해당하는 것으로 흉례에 사용되었으며 복색금제를 통하여 길하지 않는 색[84]으로 상징된다.

여기에 금사 장식으로 인한 황색은 높고 귀함을 상징[85]하는 것으로 흰색 바탕인 원삼에서 명성황후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화려한 금사 장식과 흉배를 통해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명성황후의 국모로서의 모습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일본에 의해 시해를 당하지만 죽는 순간 뿐만 아니라 죽은 이 후에도 조선의 국모로서의 위엄을 당당하게 지키려한 명성황후의 마지막 순간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국모로서의 당당함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84) 김혜원. *앞의* 논문. p.16.
85) 김혜원. *앞의* 논문. p.17.

dCollection @ jeju

<표 6>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의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 암살계획으로 시해되는 장면. · 조선의 국모로써의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섬
극중 의상	
고증의상	 <그림9-1> 윤황후 원삼. 옷과 그들. p. 169.
극중의상 분석	· 흰원삼과 황색치마 · 금사장식과 흉배 · 죽음을 암시하는 색상으로 시해상황을 표현하고 금사장식, 흉배등의 왕비의 상징을 착용하여 국모로서의 당당함 표현

⇩

국모로서의 당당함

dCollection @ jeju

2. 엘리자베스

2-1 '엘리자베스- 골든 에이지' 영화 줄거리

신교도와 구교도의 대립으로 대륙 간의 전쟁이 한창인 16세기 말의 영국은 신교도인 여왕 엘리자베스 1세(케이트 블란쳇 역)가 통치하고 있다. 구교도가 주권을 잡은 스페인은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메리 스튜어트(사만다 모튼 역)를 이용해 영국을 점령하고자 엘리자베스의 암살음모를 계획한다.[86] 종교적인 차이와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라는 이유로 그녀를 향한 정치 외교적인 대립이 국 · 내외적으로 일어났다.

국가 간의 동맹을 목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혼자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외교적인 목적에 의해 앵무새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지금까지 보아온 남자들과는 달리 자신 앞에서 당당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자유로운 탐험가 월터 라일리(클라이브 오웬 역) 경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의 위치 때문에 애써 마음을 숨기지만 라일리 경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여자로서의 삶과 여왕으로서의 권위에서 갈등하게 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를 친구로 만 인정한다.

이때 메리 스튜어트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향한 암살 음모가 발각된다. 반역자로 메리 스튜어트를 사형하게 된다. 메리 여왕의 죽음을 빌미로 스페인은 영국과의 거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 한 여자로서의 인생에 사랑이라는 축복 대신 전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녀는 운명이 자신의 어깨 위에 얹어놓은 여왕의 자리를 인정하고 검을 손에 쥔다. 그리고 스페인 무적함대에 맞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을 시작한다.[87]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여왕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다.

---

86) 'Elizabeth : The Golden Age' 자료검색일 2010 .10 .7.
자료출처 http://www.cine21.com/Movies/Mov_Movie/movie_detail.php?s=base&id=21415

87) 'Elizabeth : The Golden Age' 자료검색일 2010 .10 .7.
자료출처 http://www.cine21.com/Movies/Mov_Movie/movie_detail.php?s=base&id=21415

dCollection @ jeju

2-2 영화 속 엘리자베스 인물 분석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인으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여왕의 자리에 오른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비난하는 세력들과 맞서게 되면서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형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이용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오직 여왕과의 정치적 결합을 위해 몰려드는 결혼후보자들을 정치적으로만 대할 뿐이다.

그러나 월터 라일리를 만나게 되면서 여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월터 라일리는 다른 청혼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하며 여왕 앞에서 전혀 굽힘이 없는 인물이다. 다양한 사건들의 조언자로서도 그는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인으로서 한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여왕을 고운 시선으로만 보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과 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국왕의 자리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자신의 국왕으로서의 운명을 선택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조언자이자 친구로 만 남게 한다.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을 향한 암살 계획이 실행되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메리 여왕을 처형함으로서 스페인과의 외교적 대립이 초래된다.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대항한 영국군 앞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카리스마 있는 군주로서의 모습은 더욱 빛난다. 전쟁에 나선 엘리자베스 여왕은 두려워하는 영국군에게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공표하며 선봉에 선다. 이에 영국군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성보다 뛰어난 용맹심에 강적 스페인을 무찌른다. 이로써 엘리자베스 여왕은 남성보다 더한 군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

dCollection @ jeju

2-3 의상 분석

극 중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 총 24벌이며, 극 중 스토리 전개상 유추된 이미지에 따라 선별된 8벌의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내외적인 정치를 하는 모습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2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1>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종교문제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 중인 장면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는 영국에는 구교과 신교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신교도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항상 구교도들에 의한 암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대신들은 구교도을 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11> 붉은색 로브
<Elizabeth : The Golden Age(2007)>
DVD.

<그림 12> 금색 로브
<Elizabeth : The Golden Age(2007)>
DVD.

dCollection @ jeju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구교도일지라도 영국국민인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한 보호할 것이라고 대신들에게 강조하는 장면이다. 남성 대신들과의 회의를 주도함에 있어서 여왕으로서 여성적인 모습이 아닌 어떤 왕보다도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에서 착용한 의상을 분석해보면, 형태는 붉은 색의 로브 형식이며, 같은 색상의 모티브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여기에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와 깃털로 된 V자형 머리 장식과 심플한 금장식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왕과 귀족들은 복식의 부피를 확대하고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지위를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는 얼굴 주위에 부피를 형성함으로써 정신적인 고귀함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러프칼라를 착용하면 고개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특권층을 상징하는 권위를 띠고 있기 때문이고, 허리 아랫부분의 폭을 확장해 원뿔형 실루엣 스커트는 실루엣을 극도로 과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강렬한 붉은 색상의 V자형 머리장식은 군인들의 투구에 장식되어 높은 지위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깃털 장식을 차용한 것으로, 여왕의 권위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준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그 당시의 복식은 스토마커 부분에 화려한 장식을 했지만, 극 중 의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색상의 벨벳 모티브와 보석의 장식을 통해 우아한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복식은 여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절대왕정시대의 군왕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군왕으로서의 위엄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강력한 카리스마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는 외교적인 관계에서 스페인과는 겉으로는 우방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적과의 관계로 노출된 의회 장면이다. 즉, 스페인에 대해 보고를 받던 중 스페인 대사가 등장하고 이에 대응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탁월한 외교술이 드

dCollection @ jeju

러난다.

<그림 12>에서 착용한 복식을 분석해보면, 형태는 금색의 로브 형식이며, 같은 색상의 모티브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여기에 귀족의 특권을 상징하는 앞이 트인 부채모양의 메디치 칼라(medici collar)와 양다리 소매를 부착하고 깃털로 된 풍성한 머리 장식과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깨를 높고 넓게 강조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효과를 표현한 듯하다. 전체적인 금색을 사용한 것은 왕권을 상징하며 국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표출하기 위함이라고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복식은 군왕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하며 외유내강적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외교술이 표출된 것이라고 사려된다. 정치적인 강한 모습 이면의 여성스러움을 부각시켜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외교술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표 7>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종교적인 문제로 회의를 주도하는 장면 · 여왕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줌	· 대신들과 함께한 의회 장면 · 외유내강의 카리스마를 보여줌
극중 의상		
고증의상		
	<그림 11-1> Elizabeth Ⅰ: The Peace Portrait, 1580-5.	<그림 12-1> Elizabeth Ⅰ: The Hardwick Portrait, 1599.
극중의상 분석	· 붉은 색 로브 · 수레 바퀴형 러프칼라와 V자형 머리장식 착용 · 강렬한 색상과 장식들로 절대 왕정 시대의 군왕의 강력한 카리스마 표현	· 금색 로브 · 메디치 칼라와 깃털 머리장식과 금색 액세서리 · 여성스러운 장식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 표현

⇩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dCollection @ jeju

2)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 중에 여인으로서의 내면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2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3>은 월터 라일리에게서 신대륙과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엘리자베스여왕의 모습이다. 국왕으로서의 위치에 갇혀 있는 엘리자베스여왕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월터 라일리에게 왕으로서가 아닌 여인으로서의 마음이 담겨있는 장면이다.

<그림 13> 푸른색 볼레로
<Elizabeth : The Golden Age(2007)>
DVD.

<그림14> 은회색 로브
<Elizabeth : The Golden Age(2007)>
DVD.

<그림 13>에서 착용한 복식을 분석해 보면, 은회색 로브에도 어깨를 높고 넓게 강조한 스타일을 선호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취향을 표현하기 위해 소매에 작은 털 장식과 끝에는 레이스 장식이 되어있다. 기존의 메디치칼라의 약소화된 두겹

dCollection @ jeju

형식과 소매와 로브의 연결부분엔 에폴렛(epaulet)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액세서리로 금색의 반지와 귀걸이로만 장식을 하고 있다. 이는 권위적인 러프 칼라 대신에 약소화된 메디치 칼라와 부드러운 레이스 장식, 그리고 작은 털장식으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려는 의도라고 유추된다. 다시 말해서 권위적인 상징인 과도한 장식을 최소화함으로써 월터 라일리에게는 여자이고 싶은 여왕의 심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전체적인 은회색에 푸른색을 포인트로 배치하여 푸른색에서 느껴지는 냉정함, 차가움등의 이미지[88]를 차용한 것이라 사려된다. 이는 여왕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은 물론 여왕의 지위를 수용해야만 하는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내적인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복식은 나라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호감이가는 남자를 대하는 여자로서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국왕의 지위를 망각할 수 없는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4>는 월터 라일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자신이 떠날 것임을 청하지만 여왕은 오히려 라일리를 근위대장으로 명하여 남게 하는 장면이다. 그 이유는 메리 여왕의 주도 하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암살 계획이 노출되고 나라의 운명이 불안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의지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월터 라일리가 떠나겠다는 말에 여왕은 심리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나 여왕이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월터 라일리를 근위 대장으로 옆에 두려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착용한 복식을 분석해 보면, <그림 13>의 의상과 유사하나 은회색 로브에 슬래쉬 장식이 있는 소매가 달려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고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뿔렛과 슬래쉬는 그 시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화려한 장식의 목적으로 자수, 보석등으로 장식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극 중 의

88) 이수경 (2002). *청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 서양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dCollection @ jeju

상의 에뿔렛과 슬래쉬의 장식은 과하지 않게 절제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표현한 것이라 사려된다. 더불어 은회색과 푸른색을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금색 장식품들을 착용한 것은 여왕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은 물론 여왕의 지위를 수용해야만 하는 내적 갈등을 아이러닉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월터 라일리에게 기대어 그와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과 한 남자의 여자로서만 살아갈 수 없는 국왕이라는 운명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적심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표8>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호감이 가는 이성을 대하는 장면 ·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내면 표현	· 월터 라일 리가 떠나겠다고 청한 여왕이 만류하는 장면 · 여자와 군왕 사이의 갈등 표현
극중 의상		
고증의상		
	<그림 13-1> Elizabeth Ⅰ: The Rainbow Portrait, 1600	<그림 14-1> Elizabeth Ⅰ: The Hardwick Portrait, 1599.
극중의상 분석	· 은회색 로브와 푸른색 볼레로 · 작은 털장식 · 여성스러운 장식과 냉정한 색상의 공존으로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	· 은회색 로브와 푸른색 볼레로 · 슬래쉬 장식 · 최소한의 장식과 냉정한 색상의 배열로 내면의 갈등 표현

⇩

이중적 내면의 갈등

dCollection @ jeju

3)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의 이미지

스페인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본의 아닌 처형을 한 후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내면의 슬픔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1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5, 16>은 메리 여왕의 참수형 후에 괴로워하는 장면이다. 스페인의 계략에 의해 메리 여왕의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남에 따라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촌인 메리 여왕을 사형에 처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결국 메리 여왕은 참수형에 처하게 되고, 이 역시 스페인의 전쟁 계획 중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슬픔이 분노에 이르는 장면이다.

<그림 15> 배제된 장식
<Elizabeth : The Golden Age(2007)>
DVD.

<그림 16> 보라색 로브
<Elizabeth : The Golden Age (2007)> DVD.

<그림 15, 16>에서 착용한 복식을 분석해 보면, 보라색 로브에 보디스와 같은 직물로 만든 파틀렛(partlet)을 이용한 하이네크라인이 달려있으며, 하이네크라인 위로는 안쪽에 검은색 러프 칼라가 드러나 마치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을 묘사한 듯하다. 양다리 모양의 소매는 기존보다 조금 축소된 듯하고 소매 끝에는 검정 망사 장식이 달려 있으며 어깨부분에 검은색의 에뽈렛이 달려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녀왕으로서 군중들에게 왕으로서의

dCollection @ jeju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의상을 선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극 중에서는 모든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극 중 엘리자베스 여왕의 슬픈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 사려된다. 죽음과 심리학적으로 연약함이나 우울 공포 등의 정서[89]를 의미하는 보라색과 죽음의 어둠, 절망, 슬픔, 비애, 자기비하등과 망자에 대한 애도[90]의 의미가 함축된 검정색을 이용하여 여왕의 슬픔을 극대화 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사촌인 메리 여왕의 암살 시도 실패로 인해 참수형을 명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며 이 또한 스페인의 계략인 것을 알고 더 더욱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다는 여왕으로서의 현 상황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절제된 슬픔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89) 전영심. *앞의* 논문. p.54.
90) 김혜원. *앞의* 논문. p.15.

dCollection @ jeju

<표 9>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의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메리 여왕의 참수형 뒤의 여왕의 모습. · 원치 않게 메리 여왕을 처형 한 뒤에 극도의 슬픔을 겪는 심리 상태
극중 의상	
고증의상	 <그림15-1> Elizabeth Ⅰ: The Ermine Portrait, 1585.
극중의상 분석	· 보라색 로브 · 절제된 장식 · 슬픔을 상징하는 색상과 절제된 장식으로 슬픔 표현

⇩

절제된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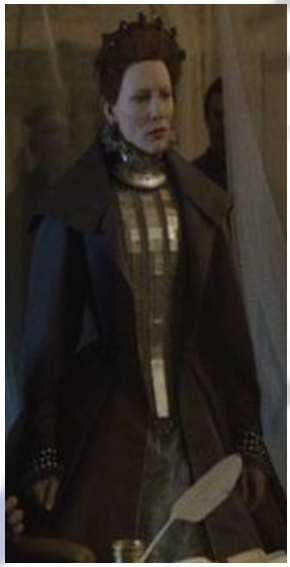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4)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의 이미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국왕으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 착용된 의상 2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7>은 스페인과의 정치적 갈등에 의해 전쟁을 해야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전쟁을 결정하여 이를 대신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이다.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은 뒤 국왕으로서 영국의 승리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17> 보라색 로브
<Elizabeth : The Golden Age (2007)> DVD.



<그림 18> 메탈장식로브
<Elizabeth : The Golden Age (2007)> DVD.

<그림 17>에서 착용한 복식을 분석해 보면, 보라색의 로브 형태이며 검정색의 작은 레이스 러프 칼라가 달려 있다. 스커트의 중심에 비즈로 장식한 검정색 띠로 장식되어 있으며 어깨위에서 허리로 이어진 비즈로 된 휘장이 장식 되어있다. 이 장면의 의상에서는 전체적인 색상을 보라색으로 하였다. 보라색은 오랫동안

dCollection @ jeju

권위의 상징으로 되어왔으며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선한 동기, 강화된 영혼의 정진[91]을 나타내는 색이다. 여기에서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라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전을 앞두고 국왕으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 , 엘리자베스 여왕의 강인함의 표현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8>은 스페인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전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이다. 아직은 영국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전세를 보고 받으며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착용한 복식을 분석해 보면, 메탈 장식이 있는 로브 위에 회적색 코트를 착용하고 있다. 회적색 코트의 소매 끝에 쇠 구슬 장식을 하고 앞을 오픈하였다. 안에 입은 로브에 갑옷을 형상화 한 메탈 소재의 스토마커와 작은 러프 칼라를 부착하였으며 은회색 스커트를 매치하고 있다. 전체적인 색상을 어둡게 하고 모든 장식을 메탈로 하여 전시임을 표현한 것으로 사려된다. 여기에 지나친 장식을 피하고 스토마커와 칼라는 갑옷을 형상화하여 제작함으로서 전쟁에 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적을 만나 해전을 하게 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으로 전시에 영국군의 두려움을 덜어주며 그들의 선봉에 서서 스페인에 대항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강인함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91) 전영심. *앞의 논문*. p.35.

dCollection @ jeju

<표 10>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의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스페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 전쟁을 준비하는 강인한 정신력	·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맞서 전쟁에 나선 여왕의 모습. · 강한 적을 만나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대항하는 강인함이 보임
극중 의상		
고증의상		
	<그림 17-1> Elizabeth Ⅰ: The Phoenix Portrait, 1575	<그림 18-1> Elizabeth Ⅰ: Darnley Portrait, 1575.
극중의상 분석	· 보라색 로브 · 검정색 러프 칼라와 비즈 장식 휘장 · 강화된 정진, 권위의 상징인 색상과 장식으로 강인함 표현	· 회적색 코트와 은회색 스커트 · 메탈 장식 스토마커와 러프 칼라 · 갑옷을 형상화한 스토마커와 장식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강인함 표현

⇩

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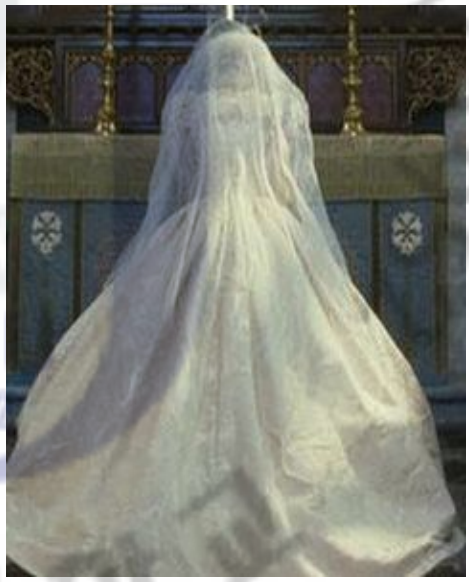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5)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의 이미지

스페인의 계략으로 인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암살 장면을 표현한 장면에 착용된 의상 1벌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9, 20>은 교회에서 기도 중이던 여왕을 향한 암살 기도 장면이다. 메리 여왕에 의한 암살 계획이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교회에서 기도 중이던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암살자가 나타나고 여왕은 암살자를 향해 바라본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암살자를 두려하는 기색 없이 두 팔을 벌려 그를 수용하고 용서해 줄 듯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는 장면이다.

<그림 19> 흰색 로브
<Elizabeth : The Golden Age (2007)>
DVD.



<그림 20> 흰색 베일
<Elizabeth : The Golden Age (2007)>
DVD.

<그림 19, 20>에서 착용한 복식을 분석해 보면, 끝에 레이스 장식이 있는 양다리 모양의 소매가 달린 흰색 로브를 착용하고 있다. 어깨에는 주름 잡힌 레이스의 에뿔렛이 달려있고, 금색 진주 목걸이와 여왕의 상징과 같은 스퀘어 금반지를

dCollection @ jeju

끼고 있다. 로브와 베일의 전체적인 색상을 백색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백색을 살펴보면 신성하고 고결한 이미지의 높은 위상을 상징[92]하며 더불어 부활을 상징[93]하는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색의 로브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왕으로서의 위상과 암살로도 막을 수 없는 영국 국왕으로서의 위대함을 표현해준 것이라 사려 된다. 전체적인 레이스 장식, 부드러운 느낌의 메디치 칼라와 흰색 베일을 매칼라는 레이스로 만든 작은 메디치 칼라이며 스토마커에는 자수와 보석 장식이 되어 있으며 짧은 베일로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여기에 치하여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비록 암살자이긴 하나 영국국민이므로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여왕의 의도가 표출된 것이라고 사려된다. 여기에 스토마커의 보석 장식과 금색 액세서리 등의 화려한 장식을 통해 여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복식은 죽음을 감지하고도 암살자까지도 영국국민이므로 감싸 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고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는 심리를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군주로서의 당당함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92) 박성주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백색 연구 -2000년-2004년의 해외 여성 기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93) 박성주. *위의* 논문. p.21.

dCollection @ jeju

<표 11>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의 이미지

극중상황 및 심리상태	· 1585년 메리여왕에 의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려하는 장면 · 총을 겨누고 있는 암살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
극중 의상	
고증의상	 <그림19-1> Elizabeth Ⅰ: The Ditchley Portrait, 1592.
극중의상 분석	· 흰색 로브 · 흰색 베일, 금색 액세서리 · 신성하고 고결한 이미지의 높은 위상을 상징하는 색상과 액세서리로 군주로서의 당당함 표현

⇩

군주로서의 당당함

dCollection @ jeju

Ⅳ. 두 주인공의 의상 비교 분석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명성황후의 의상과 “엘리자베스 : 더 골든 에이지”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을 다섯 가지 이미지로 비교 하였다.

첫째,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는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정치인으로서의 남성적인 강인함과 개방성을 표현하여 여성적인 왕비로서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 표출되어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은 강력한 위엄이 표현되어 군왕으로서의 정치하는 남성성과 여성적인 외교술을 표현하여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이와 같이 두 주인공의 의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각각 정치를 하는 분위기에서 표현된 카리스마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여인으로의 삶과 왕비 또는 여왕으로서의 운명적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내면의 상태가 표출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극도의 슬픔에 빠진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왕비의 위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잃은 딸로서의 슬픔을 표출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은 슬픈 상황 속에서도 군왕으로서의 위치에 의해 절제된 슬픔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 두 의상에서는 표현기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슬픔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넷째,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감추고 전기 점화식에 나가 반대 세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표현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은 스페인과의 전시에 대항하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비록 두 주인공의 상황적 배경에 차이가 있

dCollection @ jeju

지만, 두 주인공의 의상 각각에는 적에 대항하려는 강인함이 유사하게 내포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강인함의 이미지가 표출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시해와 암살이라는 상황 하에서 두 주인공의 운명적 지위가 조선의 국모와 영국의 국왕이기에 죽음 앞에서 위엄을 지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표현되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당당함의 이미지가 표출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주인공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 의상에 함축된 상징적 이미지를 유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Collection @ jeju

1)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표 12> 카리스마 이미지의 비교분석

	명성황후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극중 상황 및 심리 상태	· 대원군과의 연회 장면 · 정치에 참여하려는 명성황후의 의지 표현	· 각국 대사 부인들과의 연회 장면. ·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명성황후의 외교적 성향	· 종교적인 문제로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 · 여왕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줌	· 대신들과 함께한 의회 장면. · 외유내강의 카리스마를 보여줌
극중 의상				
극중 의상 분석	· 녹당의와 보라색 대란치마 착용 · 용무늬 보와 연꽃무늬 금박 장식 · 왕권을 상징하는 색과 문양을 사용함으로서 강인한 카리스마 표현	· 분홍저고리와 보라색치마 착용 · 용무늬 보와 꽃자수 장식 · 부드러운 색상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착장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 표현	· 붉은 색 로브 · 수레 바퀴형 러프칼라와 V자형 머리장식 착용 · 강렬한 색상과 장식들로 절대왕정 시대의 군왕의 강력한 카리스마 표현	· 금색 로브 · 메디치 칼라와 깃털 머리장식과 금색 액세서리 · 여성스러운 장식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 표현

⇩

카리스마 표출

dCollection @ jeju

2)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표 13> 이중적 내면의 이미지 비교분석

	명성황후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극중 상황 및 심리 상태	· 무명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 · 무명을 보호하고픈 여인의 마음과 왕비로서의 정치적 심리가 공존함	· 일본에 의해 암살계획이 드러나고 무명이 명성황후에게 도피하기를 청하는 장면 · 명성황후는 나라를 버리고 도피할 수 없다하나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함	· 호감이 가는 이성을 대하는 장면. ·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내면 표현	· 월터 라일 리가 떠나 겠다고 청한 여왕이 만류하는 장면. · 여자와 군왕 사이의 갈등 표현
극중 의상				
극중 의상 분석	· 청색 장포와 보라색 대란치마 착용 · 절제된 장식 · 격식에 맞지 않는 착장과 절제된 장식, 색상으로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	· 보라색 당의와 남색 대란치마 · 용무늬보와 금박 장식 · 중성의 색상을 사용하여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	· 은회색 로브와 푸른색 볼레로 · 작은 털장식 · 여성스러운 장식과 냉정한 색상의 공존으로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현	· 은회색 로브와 푸른색 볼레로 · 슬래쉬 장식 · 최소한의 장식과 냉정한 색상의 배열로 내면의 갈등 표현

⇩

내면의 갈등 표출

dCollection @ jeju

3)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의 이미지

<표 14> 슬픔의 이미지 비교분석

	명성황후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극중 상황 및 심리 상태	· 정치적 싸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장면 ·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극도의 슬픔을 겪는 심리 상태	· 엘리자베스 여왕의 암살을 시도 한 메리 여왕의 참수형 뒤의 여왕의 모습. · 원치 않게 메리 여왕을 처형 한 뒤에 극도의 슬픔을 겪는 심리 상태
극중 의상		
극중 의상 분석	· 연보라색 저고리와 보라색 대란치마 · 꽃모양의 수 장식 · 슬픔을 상징하는 색상과 간소화된 문양으로 슬픔을 표현	· 보라색 로브 · 절제된 장식 · 슬픔을 상징하는 색상과 절제된 장식으로 슬픔 표현

⇩

슬픔의 표출

dCollection @ jeju

4)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의 이미지

<표 15>강인함의 이미지 비교분석

	명성황후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극중 상황 및 심리 상태	· 전기 점화식에 참석한 장면. · 어머니의 부고소식을 전해들은 직후 그 배후 인물들이 참석한 자리에 슬픔을 누르고 그들 앞에 나선 강인함이 보임	· 스페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 전쟁을 준비하는 강인한 정신력	·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맞서 전쟁에 나선 여왕의 모습. · 강한 적을 만나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대항하는 강인함이 보임
극중 의상			
극중 의상 분석	· 흰원삼과 홍색치마 · 전체적인 금사 장식에 홍색으로 포인트를 줌 · 위엄, 높고 고귀함, 경고의 상징인 색상과 장식으로 강인함 표현	· 보라색 로브 · 검정색 러프 칼라와 비즈 장식 휘장 · 강화된 정진, 권위의 상징인 색상과 장식으로 강인함 표현	· 회적색 코트와 은회색 스커트 · 메탈 장식 스토마커와 러프 칼라 · 갑옷을 형상화한 스토마커와 장식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강인함 표현

⇩

강인함의 표출

dCollection @ jeju

5)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의 이미지

<표 16> 당당함의 이미지 비교분석

	명성황후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극중 상황 및 심리 상태	·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 암살계획으로 시해되는 장면. · 조선의 국모로써의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섬	· 1585년 메리여왕에 의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려하는 장면 · 총을 겨누고 있는 암살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
극중 의상		
극중 의상 분석	· 흰원삼과 황색치마 · 금사장식과 흉배 · 죽음을 암시하는 색상으로 시해상황을 표현하고 금사장식, 흉배등의 왕비의 상징을 착용하여 국모로서의 당당함 표현	· 흰색 로브 · 흰색 베일, 금색 액세서리 · 신성하고 고결한 이미지의 높은 위상을 상징하는 색상과 액세서리로 군주로서의 당당함 표현

⇩

당당함의 표출

dCollection @ jeju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명성황후의 의상을 살펴본 결과, 극 중 상황의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색상, 장식등을 재해석, 제작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 더 골든 에이지”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의상을 살펴본 결과, 고증을 통해 볼 수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은 국왕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권위의 상징을 중요시하여 대부분은 복식의 부피를 확대하고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지위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극중 상황에 따라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과도한 장식들을 배재하고 각 상황의 이미지에 맞게 색상과 디테일적인 부분을 재해석하였음을 유추하였다.

dCollection @ jeju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대에 오면서 대중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함에 따라 대중들과 직접 교류 할 수 있는 예술 문화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예술 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영화에서 의상이 대중들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영화 의상이 영화의 스토리는 물론 극적인 분위기를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화 속의 의상을 분석함으로써 영화 의상이 극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화 의상 제작자에게도 영화의상이 극적 상황에서 표출되어야 하는 의미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배경으로 기획된 시대극인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엘리자베스-골든 에이지'를 비교 ·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영화 '엘리자베스-골든에이지'에서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의 명성황후의 영화의상을 선택하여 비교 · 분석하였던 이유는 비록 두 작품의 주인공이 시대적 상황과 동 · 서양의 지역이라는 특성의 차이와 통치자였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왕비로 정치에 참여한 명성황후라는 지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여주인공의 인물 캐릭터 상의 공통점을 발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두 여주인공의 공통점은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등으로 도출하였고, 이에 두 주인공의 성격과 스토리 상황에 따라 개별성 있게 표출된 의상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에 함축된 상징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다섯 가지 극적인 상황에서의 의상을 비교 분석하여 유추한

dCollection @ jeju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표출시킨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여성성과 개방성을 함축시켜 왕비로서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 표출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은 남성성과 위엄을 함축시켜 군왕으로서의 정치하는 상황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 두 주인공이 왕비와 여왕이라는 지위 차이는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 주인공의 의상에는 정치에 필요한 카리스마가 함축되었다.

둘째,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인으로의 삶과 왕비 또는 여왕으로서의 운명적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의 상태가 함축되어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이중적 내면의 갈등이 함축되었다.

셋째,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왕비의 위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잃은 딸로서의 슬픔이 표출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은 슬픈 상황 속에서도 군왕으로서의 지위에 의해 절제된 슬픔이 표출되었음을 도출하였다. 물론 두 주인공의 의상 표현 기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슬픔을 함축시킨 부분은 유사하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슬픔이 함축되었다.

넷째,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감추고 전기 점화식에 나가 반대 세력에 대응하는 당당한 모습이 표현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은 스페인과의 전시에 대항하는 당당함이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서, 두 주인공은 상황적 차이가 있지만, 두 주인공의 의상에는 적에 대응하기 위한 강인함이 공통점으로 도출되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강인함이 함축되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해와 암살이라는 상황에서 두 주인공의 운명적 지위인 조선의 국모와 영

dCollection @ jeju

국의 국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즉, 두 주인공의 의상에는 당당함이 함축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	카리스마의 표출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이중적 내면의 갈등 표출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 이미지		슬픔의 표출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 이미지		강인함의 표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이미지		당당함의 표출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영화라 하더라도 유사한 극적인 상황에 따라 표출된 영화 의상의 상징적 이미지가 유사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화의상에 극 중 스토리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및 상징적 의미를 함축시킨다면 대중들에게 극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기획된 영화 의상은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극적인 상황에서의 의상 재해석 방법을 영화의상 제작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화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영화의 극적인 분위기의 표현은 물론 이에 따른 상징적 의미도 의상에 함축시켜야 함을 제안하고 앞으로 영화 산업의 발달에 따라 영화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의상이 예술의 한 장르로 예술적 가치를 부

dCollection @ jeju

여하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지역적 · 시대적 · 지위적인 차이에 때문에 두 주인공의 영화의상을 비교함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는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두 주인공의 영화 스토리상의 공통점을 유추하여 다섯 가지 상황을 발췌해 비교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차후에 더욱 다양한 영화의상을 비롯한 무대의상과 다양한 캐릭터의 의상 분석 및 영화 의상의 상징적 표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다.

dCollection @ jeju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석주 (1998). *세익스피어의 문학세계*. 서울: 동인

고혜정 (2002). *舞臺公演에 나타난 扮裝에 관한 硏究 -뮤지컬 '명성황후'를 中心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서울2004

권현진 (1994).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Amadeus를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혜수 (2007). *영화 <ELIZABETH-THE GOLDEN AGE>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혜수 (2008). "영화<Elizabeth: The Golden Age>(2007)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 -Queen Elizabeth의 복식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2(5)

김미성 (1999). *영화의상이 1990년대에 미친 영향 -1960년대~1990년대 영화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영 (1999).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복식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곤 (1997). *영화예술의 미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영 (2005). *영화로 보는 복식사*. 서울: 경춘사

김유경 (1994). *옷과 그들*. 서울: 삼신각

김지연 (2009). *'한국영상매체에 나타난 의상고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고려원.

김혜원 (2008). *색의 상징성과 우리말 표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진 (2001). *영화의상이 패션에 끼친 영향 -1920년대~1960년대 헐리우드 영화*

dCollection @ jeju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종일, 송규범 (2005). *영국의 역사.* 파주: 한울

류희경, 김미자, 조효순, 박민여, 신혜순, 김영재, 최은수 (2008). *우리 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문화관광부·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4). *우리옷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박성주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백색 연구 -2000년 - 2004년의 해외 여성 기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향 (199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박지향 (2004). '처녀왕' 엘리자베스의 신화. *영국연구,* 11(-)

박춘순, 서미영, 서미희, 장은성 (2002).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의상분석.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5(1)

백영자, 최해율 (1993).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심수연 (2000)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그 의식의 변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명숙, 김용서 (1996). *한국복식사.* 서울: 敎文社.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9). *복식문화.* 서울: 敎文社

유희경·김문자 (1999).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윤지영 (2009). 'Wolfflin과 Delong 이론을 통해 고찰한 영화의상의 형태적 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 33(7)

이민원 (2007). 명성황후와 감고당. *역사실학회,* 32(-)

이수경 (2002). *청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 서양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유진 (2008). *영화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의상디자인 표현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영심 (2008). *보라색의 상징성 연구 -서양 복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린 (2006). *조선시대 여자복식에 나타난 꽃문양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dCollection @ jeju

정홍숙 (1995). *服飾文化史 -西洋服飾史-*. 서울: 敎文社

조수현 (2010). *現代史劇에 나타난 明成皇后 服飾에 관한 硏究 -드라마'명성황후', 영화'불꽃처럼 나비처럼', 뮤지컬'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옥례 (2000). 조선시대 궁중여인의 예복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3(3)

조윤영 (2001). *영화의상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로브에 대한 표현효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윤영, 양숙희 (2003). 영화의상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로브의 표현효과. *복식*, 53(3)

조효순 (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최은임 (2007). 오페라 <투란도트>의 舞臺衣裳 硏究 - 女主人公 투란도트의 衣裳을 中心으로- . *패션 비즈니스 학회지*, 11(2)

한양대 연극영화과 편 (2000). *영화예술의 이해*. 서울 한양대 출판부

허명희 (1986). *"조선조 복식의 원삼과 활옷의 형태와 문양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왕수 (1999). *Marcel Martin. Le Language Cinematographique.* 영상언어:다보문화

<인터넷 자료>

네이버영화. 자료검색일 2010, 10. 11, 자료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7865

씨네21. 자료검색일 2010, 10. 7, 자료출처 http://www.cine21.com/Movies/Mov_Movie/movie_detail.php?s=base&id=214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0, 09. 27, 자료출처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2384&ty=2

http://www.marileecody.com 자료검색일 2010, 09. 19

http://englishhistory.net 자료검색일 2010, 10. 20

dCollection @ jeju

ABSTRACT

A study on coustumes in movie "The Sword with No Name" and "Elizabeth: Golden Age"

-Focusing on Empress Myeong-seong and Queen Elizabeth I-

An Mi-Hwa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Ae-Ran

The movie costumes, artistic and figurative, serve to maximize the dramatic conveying effect of the movie's theme, actor's character, and the image of a dramatic situation expressed through clothing. As the public becomes more interested in the movies, the most accessible of the many cultural artistic performance genres, the interest in costumes is also increasing. Especially the costumes made for dramatization of historic events based on facts are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directly transfer information, such as the movie's theme, the actor's character, and image of a dramatic situation, to the audience. Added to that, the reproduction and the reinterpretation through historical costumes convey the image more effectively to the audien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research would be meaningful if it studied on how the movie costumes are implied with symbols in order to present a dramatic ima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compared, analyzed, and interpreted the historical plays produced on historical backgrounds, 'Like fireworks like butterfly' and

Collection @ jeju

'Elizabeth - Golden Age'. In other words, five dramatic situations were extracted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stumes of Empress Myeongseong of the movie 'Like fireworks like butterfly' to the costumes of Queen Elizabeth from 'Elizabeth - Golden Age'

First, the charisma as a politician involved in politics, second, the inside that wants to live as a loved woman, third, the extreme sadness from political conflicts, fourth, the strength against the opposing power, fifth, the nobleness that does not fear death, and such are the situations extracted. The costumes presented according to the storyline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two characters with these five as the basis a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implied symbolic meaning could be interpreted and analogized based on the results.

Therefore the summation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the following.

Firstly, having compared and analyzed the costumes of the two characters that show the charisma as politicians, even 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ir status as queen and empress, both had the charisma needed for politics compressed in their costumes.

Secondly, having compared and analyzed the inside of the two protagonists who want to live as loved women, one could derive that they were in an inside conflict between the life as a woman and the destined life as a queen. In other words, the costumes of the protagonists had an ambiguous inner conflict compressed in them.

Thirdly, having compared and analyzed the costumes of the protagonists who are in extreme sadness due to political conflict, the two costumes are similar in that both imply sadness even though expression technique may be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sadness is implied in the costumes of both of the characters.

Fourthly, having compared and analyzed the strength of the two protagonists when facing the opposite side, even 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Collection @ jeju

regarding the situation, both of the protagonists' costumes derived the strength to face the enemies.

Fifthly, having compared and analyzed the costumes of the two characters who show nobleness in not fearing death, there was nobleness that did not fear death and the dignity of the destined status as the monarch of England and the Mother of the State of Chosun even when facing regicide and assassination. In other words, the costumes of the two protagonists implied nobleness.

As shown, one may extract that there are similar symbols of the movie costumes presented at the dramatic scene even though they may each be from different movi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ymbolic meaning, along with the expression of the dramatic atmosphere, needs to be implied in the design of the movie costumes. Also it is considered that providing diverse ways of expressing in the attempts of designing movie costume of diverse genre may not only be a method to fasten the development of the movie industry, but also is the baseline in giving artistic value to the movie costumes as a genre of art.

Key Words : movie costumes, Empress Myeongseong, Queen Elizabeth, Charisma, Conflict of double personality, Sadness, Strength, Nobleness

Collection @ jeju

감사의 글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대학원에서의 지난 날 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신 제 인생의 영원한 스승님 장애란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시고 멀리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신 송미경 교수님과 세심한 지도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현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며 논문을 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신 여러 교수님, 선배님과 후배님, 동기들 그리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하며 힘을 주던 조은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나의 정신적인 지주 조명옥 여사 나의 할머니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지켜봐주시는 시부모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딸이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믿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멋진 아빠, 엄마 박수자 여사께도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잘한다고 격려해주시는 순희, 희경, 순영 언니들과 승부 도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의 멋진 동생 정남, 승남 그리고 우리 아이들 봐주느라 완전 고생 많이 한 복실이에게도 말로 다 못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친구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며 항상 함께해준 소중하고 사랑하는 나의 오래된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논문을 쓸 수 있게 배려해주신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부탁인데도 흔쾌히 와준 성순, 묘경에게도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평 없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봐준 이승현 나의 사랑하는 멋진 남편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 감사를 전합니다. 엄마 공부하는 모습이 멋지다며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딸 동언이 지민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도 항상 지켜주시는 나의 영원한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께 이 논문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안미화 드림

dCollection @ jeju